

숙명여자대학교

2021 학년도 논술 가이드북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숙명여자대학교

SOOKMYUNG WOMEN'S UNIVERSITY

목 차

I.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안내	3
1. 2021학년도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3
1. 2021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5
II. 2021학년도 논술시험 개관	7
III. 숙명여대 논술 대비 방법	9
1. 논술 준비, 이렇게 하자!	9
2. 논술 합격자가 들려주는 합격수기	11
3. 논술 출제위원이 들려주는 TIP	13
IV. 2020학년도 논술시험 기출문제 분석	18
1 논술시험 출제의도	18
2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 인문계열 1회차 문항1	19
• 인문계열 1회차 문항2	25
• 인문계열 2회차 문항1	32
• 인문계열 2회차 문항2	39
• 자연계열문항	47
V. 2020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56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56
2. 논술 / 교과 성적 현황	57
찾아오시는 길	58

I. 2021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안내

1. 2021학년도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모 집 시 기	전형명	모 집 인 원	모 집 단 위 (계열)	선 발 유 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1단계 선발 배수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서류 심사	1단계 성적	학 생 부 (교과)	수능	면접	실기	논술		
수 시 모 집	학생부종합 (숙명인재I(서류전형))	423	인문계 자연계	일괄 합산	100	-	-	-	-	-	-	-	X
	학생부종합 (숙명인재II(면접전형))	230	인문계 자연계	1단계	100	-	-	-	-	-	-	4배수	X
				2단계	-	40	-	-	60	-	-		
	학생부종합 (소프트웨어융합인재전형)	19	IT공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소프트웨어 융합전공	1단계	100	-	-	-	-	-	-	4배수	X
				2단계	-	40	-	-	60	-	-		
	학생부종합 (고른기회전형)	67	인문계 자연계	일괄 합산	100	-	-	-	-	-	-	-	X
	학생부교과 (학생부교과전형)	244	인문계 자연계	일괄 합산	-	-	100	-	-	-	-	-	0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300	인문계 자연계	일괄 합산	-	-	30	-	-	-	70	-	0
	실기/실적 (예능창의인재전형)	154	체육교육과	일괄 합산	-	-	40	-	10	50	-	-	X
			무용과	일괄 합산	-	-	-	-	-	100	-	-	X
			피아노과, 관현악과, 성악과	1단계	-	-	-	-	-	100	-	3배수	X
				2단계	-	-	-	-	-	100	-	-	
			작곡과	일괄 합산	-	-	-	-	-	100	-	-	X
			사각영상디자인 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공예과	1단계	-	-	100	-	-	-	-	10배수	X
				2단계	-	-	-	-	-	100	-	-	
			회화과	1단계	-	-	100	-	-	-	-	30배수	X
				2단계	-	-	-	-	-	100	-	-	
	학생부종합 (농어촌학생전형) (정원 외)	63	인문계 자연계	일괄 합산	100	-	-	-	-	-	-	-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생전형) (정원 외)	26	인문계 자연계	일괄 합산	100	-	-	-	-	-	-	-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생전형) (정원 외)	120	문헌정보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앙트레프러너십전공	일괄 합산	100	-	-	-	-	-	-	-	X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정원 외)	15	인문계 자연계 예·체능계	1단계	100	-	-	-	-	-	-	4배수	X
				2단계	-	40	-	-	60	-	-	-	

모 집 시 기	전형명	모집 인원	모집단위 (계열)	선발유 형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수능최저 학력기준
					서류심사	수능	면접	실기	

정 시 가 군	실기/실적, 수능 (일반학생전형)	172	체육교육과	일괄합산	－	50	10	40	X
			무용과	일괄합산	－	30	－	70	X
			피아노과 성악과	일괄합산	－	20	－	80	X
			관현악과	일괄합산	－	30	－	70	X
			작곡과	일괄합산	－	40	－	60	X
			시각·영상디자인과, 산업디자인과, 환경디자인과	일괄합산	－	60	－	40	X
			공예과	일괄합산	－	40	－	60	X
			회화과	일괄합산	－	30	－	70	X
정 시 나 군	수능 (일반학생전형)	511	인문계/자연계	일괄합산	－	100	－	－	X
	수능 (기화군형선발전형) (정원 외)	31	인문계/자연계	일괄합산	－	100	－	－	X
	수능 (농어촌학생전형) (정원 외)	수시 미충원인원	인문계/자연계	일괄합산	－	100	－	－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교출산자전 형) (정원 외)		인문계/자연계	일괄합산	100	－	－	－	X
	학생부종합 (특성화고졸재직자전 형) (정원 외)		문헌정보학과 소비자경제학과 경영학부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일괄합산	100	－	－	－	X
	수능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정원 외)		인문계/자연계	일괄합산	－	80	20	－	X

2. 2021학년도 논술우수자전형

가.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인문계(글로벌협력전공, 앙트러프러너십전공 제외) 및 자연계(응용물리전공 제외) 전 모집단위 / 총 300명

나. 지원 자격

■ 고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해 고등학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다. 전형방법

구분		논술시험	학생부(교과)	계	수능최저학력기준
일괄합산	반영비율(%)	70	30	100	4개 영역 중 2개 영역 등급 합 4이내 (탐구 선택 시 1과목 반영)
	최고점/최저점	700점/525점	300점/225점	1,000점/750점	

■ 수능최저학력기준 수능 활용 영역

모집단위		반영 영역						비고	
		국어	수학		영어	사탐 (1과목)	과탐 (1과목)		
			가	나					
인문계		○	○ (가 또는 나)		○	○ (사탐 또는 과탐)		수학(가형 또는 나형), 탐구(사탐 또는 과탐) 선택 가능	
자연계	화학과, 생명시스템학부, 수학과, 화공생명공학부, IT공학전공, 전자공학전공, 컴퓨터과학전공, 기계시스템학부, 기초공학부, 식품영양학과	○	○		○		○	-	
	통계학과, 소프트웨어융합전공, 의류학과	○	○		○		○	자연계형	자연계형, 인문계형 중 택1
		○		○	○	○ (사탐 또는 과탐)		인문계형	

※ 탐구영역 반영 시 등급이 높은 1과목 만 반영합니다.

라. 전형요소별 반영방법

1) 학생부 반영방법

가) 국내 고교에서 3학기 이상 재학하고 3학기 이상 학생부 성적이 기재된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모집단위별 지정된 반영교과
군에 속한 과목을 1과목 이상씩 이수한 자(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고 졸업(예정)자 제외)

- 교과성적 활용 지표 : 학생부 반영교과의 석차등급을 이수단위로 가중 평균한 환산석차등급
- 학년별 반영비율 : 전학년 100%(학년별/학기별 가중치 없음)
- 환산석차등급 산출 공식 = $\Sigma(\text{반영교과목 석차등급} \times \text{반영교과목 이수단위}) \div \Sigma(\text{반영교과목 이수단위})$
- 환산석차등급별 학생부(교과) 성적 배점표

등급구분	1	2	3	4	5	6	7	8	9
환산석차등급	1이상~2미만	2이상~3미만	3이상~4미만	4이상~5미만	5이상~6미만	6이상~7미만	7이상~8미만	8이상~9미만	9
점수	300	296.7	293.3	289.8	286.2	271.2	257.7	245.7	225

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소재고 졸업(예정)자, 국내 고교 학생부 성적이 3학기 미만인 자 또는 모집단위별 지정
된 반영교과군에 속한 과목을 1과목 이상씩 이수하지 않은 자

- 교과성적 활용 지표 : 논술시험 성적을 활용한 비교내신 반영

2) 논술시험

유형	통합논술형								
출제범위	고교교육과정과 연계된 범위에서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합니다. ※ 통합논술형은 국문의 제시문 혹은 자료의 기술양식, 제제 혹은 논제의 성격 등이 인문·사회과학적 특성과 자연과학적 특성이 통합된 형태입니다. 자연계열문항은 풀이과정이나 정답을 요구하는 수리적 문제가 출제됩니다. *의류학과 의 논술시험은 인문계열 유형임 ※ 입학처 홈페이지 논술가이드북 및 논술특강 동영상을 참조바랍니다.								
문항수	· 인문계, 의류학과 : 인문계열 문항 2문항 · 자연계(의류학과 제외) : 자연계열 문항 1문항(세부문항 있음)								
시험시간	120분								
답안분량	<table><tr><th colspan="2">구분</th><th>형식</th></tr><tr><td rowspan="2">문항별 분량</td><td>인문계, 의류학과</td><td>1,000자 ± 100자(원고지 형식)</td></tr><tr><td>자연계(의류학과 제외)</td><td>노트형식</td></tr></table> * 연필 또는 검정색 볼펜 사용(지우개 사용 가능,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사용 불가)	구분		형식	문항별 분량	인문계, 의류학과	1,000자 ± 100자(원고지 형식)	자연계(의류학과 제외)	노트형식
구분		형식							
문항별 분량	인문계, 의류학과	1,000자 ± 100자(원고지 형식)							
	자연계(의류학과 제외)	노트형식							
성적산출	평가위원 2인이 각각 9등급(최고 700점~최저 525점)으로 종합 평가합니다.								

마. 제출서류

대상		제출서류	제출방법
국내소재 고교 졸업(예정) 자	학생부 온라인자료 활용 동의자	제출서류 없음	등기우편
	학생부 온라인자료 활용 비동의자 / 온라인 제공이 불가능한 자(비 대상교 출신, 온라인 제공 대상 졸업연도가 아닌 경우)	① 학교생활기록부 1부	
국내의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1부 ※ 검정고시 온라인제공 신청자의 경우 별도 제출하지 않음 ※ 검정고시 온라인제공 미신청자, 온라인제공 대상 회차 합격자가 아닌 경우 제출	
외국 소재 고교 졸업(예정)자		① 고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외국소재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서 포함) ② 고교 전학년 성적표 1부 (외국소재학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 또는 영사 확인서 포함) ③ 출입국 사실에 관한 증명서 1부	등기우편

II. 2021학년도 논술시험 개관

기본방향

첫째, 통합논술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따른다.

교과 지식의 단순 반복 학습과 암기를 통해 습득된 지식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과 독서와 토론을 통한 사고능력을 배양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한다. 제시문은 인문계열의 경우 문학,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예술 등으로,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 등으로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중·고등교육과정에 부합한 문제를 출제한다.

중·고등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함으로써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중·고등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한 문제를 구성하여 실제 공교육의 교과 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 문제나 보편적인 인간 상황에 적용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문제의 특성상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제시문을 채택할 경우 제시문의 핵심 요지가 중·고등교육 교과과정에 다루어지고 있는가의 기준에 따른다.

셋째, 평가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할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한다.

다양한 유형과 학문 영역의 텍스트들이 일관성 있는 주제나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어 수험생들이 제시문의 요지와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정확한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시문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답안의 구성 요소들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표준화할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또한 논술시험 전반에 내재되어 있는 비합리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한다. 제시문과 제시문, 제시문과 문제 사이의 관계가 체계적이고, 문제의 표현을 정밀하게 함으로써 수험생의 능력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채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출제방향

인문계열

인문계열의 지원자가 답해야 하는 인문계열 논술은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력을 평가하는 심화 논술에 해당한다. 주어진 글에 대한 정확한 독해력을 바탕으로 논증을 구성하고 제시된 문제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대안을 창의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제시문은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과 사회과학, 자연과학과 예술에서 다양하게 채택하며, 고전뿐만 아니라 동시대의 주요 사회적 의제도 포함한다. 문제는 수험생의 창의력이 적극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자연계열

자연계열 논술에서는 자연과학의 언어라 할 수 있는 수학의 기본 원리를 응용한 지문을 제공한다. 이 제시문의 내용을 기초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수준의 수리능력을 가진 학생이라면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수리 문제를 제시한다. 제시문에는 수학의 원리를 나타내는 수식을 직접 표현하거나 수식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도록 하여 선행학습 등에 의한 특정 공식의 암기 여부가 답안 작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한다. 수학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이해력, 분석력, 그리고 통합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계열 논술의 출제 방향이다.

문제유형

2021학년도 숙명여자대학교의 논술시험은 인문·자연 계열별로 진행된다. 2020학년도부터 공통문항이 없어지는 대신, 인문계열의 경우 한 문항이 늘어 두 문항이 출제되며, 자연계열은 공통문항 없이 계열문항 하나만 출제된다. 대신 자연계열 문항의 지문이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어난다. 인문계열 수험생은 인문계열 두 문항에 대해, 자연계열 수험생은 자연계열 한 문항에 대해 각각 답안을 제출해야 한다. 숙명여자대학교의 논술문제는 형식상으로는 교과통합형,

내용상으로는 문제해결형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교과통합형 논술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통합의 취지에 따라 인문계열의 지문은 인문, 예술, 사회, 자연 등 모든 교과 영역에서 제시되며, 자연계열의 지문은 수리영역에 집중하여 제시된다.
- 제시문은 교과서 또는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한다. ‘인문’문항에서 문학 지문을 제시할 경우 반드시 다종의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하며, 교육과정과 관련된 중요 저작의 인용문을 제시할 수 있다.
- 제시문 날개가 아닌 제시문 간의 관련성을 통해서 문제가 구성되게끔 긴밀하게 배치한다.

2021학년도 논술시험 문항 및 문제 구성

2021학년도 논술시험은 인문계열은 두 문항, 자연계열은 한 문항(지문 3개)이 출제된다. 시험시간은 2시간이다.

한편, 문제해결형의 취지를 살려 각 문항의 문제는 제시문 간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고유한 문제 상황을 스스로 파악하여 해결책 또는 대안을 창의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이를 단계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문제파악** : 다양한 현상(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독해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핵심적 문제’를 구성한다.
- 주제설정** : 파악된 문제를 바탕으로 능동적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주장과 근거가 조화된 논리구조를 만든다.
- 쓰기** : 충분히 탐색된 논거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서술해 나간다.

평가내용 및 평가기준

인문, 자연으로 이루어지는 논술 문제들을 통해 근본적으로 평가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독해력
- 둘째, 비판적 사고력
- 셋째, 문제해결능력
- 넷째, 논증 구성력
- 다섯째, 의사소통능력

우선, 논술이 입시와 관계되는 한 논술 문제는 대학의 교과과정에 대한 수학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공부는 일차적으로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문, 사회, 교양에 관한 서적들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논술시험은 다양한 저술로부터 발췌된 제시문을 통해 수험생의 독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한다.

다음으로, 논술시험은 구체적인 상황에서의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한다.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학문은 항상 주어진 과제 혹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정보사회 속에서 문제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한 가지가 아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문제 속에는 사회, 경제, 문화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변수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절하게 구성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논술시험은 이러한 맥락 속에서 수험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해결책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 또한 함께 사는 사회 속에서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생각과 관점을 인정하면서도 조화롭게 소통하기 위한 의사소통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논술시험은 논증 구성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평가 기준에는 각 문제가 중점을 두어 가늠하고자 하는 능력과 지식이 포함되며, 문제가 요구한 바를 빠짐없이, 적정하고 수준 높게 답하였는가를 평가하고 모든 답안에서 항상 고려되는 분량, 표현, 정서법 등을 평가한다.

Ⅲ. 숙명여대 논술 대비 방법

1. 논술준비, 이렇게 하자!

논술이란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글쓰기가 아니다. 제시된 글을 읽고 주어진 논제의 요구에 합당하게 글을 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시된 예문을 읽는 연습과 논제를 분석하는 연습 그리고 논제에 합당하게 글을 쓰는 연습이 요구된다. 물론 이런 것들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소 학교수업을 열심히 듣고, 다양한 독서와 글쓰기 연습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많은 문제들에 대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음은 수험생들이 나름의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필수사항이다.

첫째, 어떻게 읽어야 할까?

논술에서 ‘제시문’으로 나오는 글들은 보통 인문, 사회 및 자연을 포함하여 고전에서부터 현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그 내용 또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다음을 명심하자. 제시된 예문들은 저자의 사상을 보여주기 위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험생의 읽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나온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제시문’을 얼마나 분석적이고 비판적으로 읽어 낼 수 있는가이다.

* 특별한 고전이 아니라 평소 주위에서 접할 수 있는 글이나 이 시대의 주요한 사회적 의제(議題)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읽는 연습을 한다. 물론 고전을 읽기 위해 시간을 들이는 것도 기본적인 것이지만 시험을 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문의 칼럼이나 인터넷에서 논의되는 글들 혹은 기존의 논술문제에서 사용된 예시문을 갖고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모든 제시문을 읽을 때는 항상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는 훈련을 하자. 그리고 이렇게 요약된 내용을 다시 다섯 혹은 여섯 문장으로 요약하는 훈련을 하자. 이러한 훈련은 내용의 요점을 파악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파악한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효과적으로 내용을 요약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단락의 중심문장에 밑줄을 긋고 줄이 그어진 문장들을 연결하여 읽어보도록 한다. 이때 그 내용이 매끄럽게 논리적으로 이어진다면 그 제시문을 잘 요약한 것인 반면, 그렇지 않다면 제대로 요약하지 못한 것이다.

* 항상 질문을 던지면서 제시문을 읽는 훈련을 하자. 예를 들어 왜 이런 논의가 필요한지, 주장은 타당한지, 그 주장은 상황과 연관하여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등에 관해 질문을 던지면서 읽는다. 이러한 습관은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킨다.

둘째, 논제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

논제 속에는 수험생이 써야 하는 답의 내용과 방향이 포함된다. 따라서 논제를 잘 분석한다는 것은 곧 좋은 답문을 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된다.

* 긴 문장 혹은 여러 문장으로 이루어진 논제는 짧은 문장의 조합으로 변형시켜 본다. 논술문제의 논제는 간혹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을 수 있지만 대개는 긴 복합문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올바른 논제 분석을 위한 첫걸음은 긴 문장을 여러 개의 짧은 문장으로 바꿔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 긴 복합문의 논제를 여러 개의 짧은 문장으로 바꾸었다면, 다음으로 그 문장들의 논리적 관계가 무엇인지 따져보도록 한다. 이 논리적 단계는 곧 논술문 구성의 내용을 예시해 줄 뿐만 아니라 논술문을 작성하는 순서에 대한 지침을 주기도 한다.

* 의미가 애매하게 해석되는 논제의 문장은 앞 뒤 다른 문장과 연관 속에서 그 의미를 찾도록 한다. 출제위원들은 가능한 한 논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애매하게 해석될 수 있는 논제가 제시될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짧게 해석된 문장들을 연결하면서 그 의미를 확정하도록 한다.

셋째, 어떻게 써야 할까?

논술은 논리적 글쓰기가 아니라 논증적 글쓰기라는 점을 잊지 말자! 따라서 논술문을 쓴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논제의 요구에 따라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다. 물론 평소에 글을 많이 써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엄밀한 논증을 갖춘 글을 쓰기 위해서는 특별한 훈련이 필요하다.

* 평소 글쓰기를 위해서는 세 가지 주제로 세 편의 글을 쓰는 것보다는 하나의 주제로 세 번을 고쳐 써보는 훈련을 하도록 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글을 잘 쓰긴 못 쓰긴 간에 자신의 글은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완성된 글을 다시 읽어 보아도 자신의 글에서는 논리적 허점을 잘 찾지 못한다. 왜냐하면 글을 쓸 때의 생각으로 그 글을 다시 읽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은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생각해 보고 다시 고쳐 쓰는 훈련을 되풀이해야 한다.

* 단락 구분과 함께 단락 간의 논리적 연관을 생각하면서 글쓰기를 하는 훈련을 한다. 만약 다섯 단락으로 이루어진 글을 썼을 경우, 그 중 한 단락의 순서를 바꾸었는데도 그 글의 내용에 있어 변함이 없다면 그 글은 결코 잘된 글이라고 할 수 없다. 글은 처음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서로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경우 한 단락이라도 순서가 바뀐다면 전혀 다른 글이 될 것이다. 특히 내용을 쓸 때는 ‘제시문’에서 제시된 중심문장들을 찾아 자신의 어휘와 문장으로 재구성하는 훈련을 한다.

* 모든 글에는 항상 독자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다시 말해 글쓰기를 할 때는 예상되는 반론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면서 쓰는 훈련을 한다.

명심하자!

실제 시험에서는 ‘제시문’을 읽은 다음 논제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논제를 먼저 분석하고 그에 맞추어 ‘제시문’을 읽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따라서 논술문을 작성하는 훈련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순서로 해 보도록 한다.

※ 자연계 논술의 경우 공통문항 폐지에 따라 자연계열문항에만 답하게 된다. 문항에 대하여 제시문 분석 및 정답도출과정을 노트 형식으로 답할 수 있다. 문항은 계열 1문항이나, 이에 따른 세부문항이 있을 수 있다.

2. 논술 합격자가 들려주는 합격수기

인문계열 논술편

일본학과 20학번 박민지

논술고사를 위해 내가 한 준비는?

저는 고2 끝나갈 무렵 12월 말부터 논술을 꾸준히 준비해왔습니다. 병행해야 할 공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 하루 3시간씩 매주 일정 시간을 들여 연습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주제별로 다양한 학교들의 기출문제들을 접하며 기본기를 익혔습니다. 논제 분석부터 제시문 요약, 비판하기,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글쓰기 등의 기본을 다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예시답안 또는 첨삭을 통해 틀린 부분을 바로잡고 재필해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실력을 쌓고 글을 반복해서 다시 써보는 것, 그 두 가지는 논술고사를 보기 위해 꼭 철저하게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논술가이드북 또는 모의논술을 활용하셨나요? (그 외 입학설명회, 대학탐방 등 신청한 행사나 기억에 남는 활동)

저는 논술가이드북을 정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논술가이드북은 학교만의 출제 방향과 주의해야 할 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드북에 제시된 내용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실제로 논술고사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평소에 연습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의논술, 기출문제들이 실전 연습에 가장 좋은 자료들이 되겠지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이드북 내에 강조하는 요소들을 글에 녹일 수 있도록 노력했고 시간제한을 두어 그 시간 내에 쓸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긴 글을 써야 하는 숙명여대 논술고사에서는 실전 연습이 매우 중요하며 유형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이 때도 마찬가지로 예시답안 및 채점기준을 보며 답안을 고쳐나가고 재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숙명여자대학교의 논술고사는 단순히 논술고사만으로 학생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최저 충족이라는 요소가 크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논술뿐만 아니라 수능 공부도 끝까지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논술을 열심히 준비해도 시험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굳이 생운과 윤사, 사회문화를 수능과목으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목들의 개념들이 논술 주제로 많이 쓰이긴 하지만 고교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에 충실하고 잘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배경지식은 충분합니다. 저 또한 세계지리, 한국지리를 수능과목으로 택했지만 고2, 고3때 수업시간에 배운 생운, 사회문화 속 개념들을 떠올리며 충분히 자신감을 가지고 글을 써나갔습니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논술은 정말 합격할 확률이 낮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주변의 회의적인 말에 혹은 자신이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주눅이 들거나 흔들릴 때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기 확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 암시를 속으로 되뇌이는 것 또한 자신감 회복과 강한 멘탈을 유지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끝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포기하지 말고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간다면 운도 좋은 결과도 모두 따를거라 생각합니다. 꼭 내년엔 아름다운 숙명여대 캠퍼스에서 만나요!

논술고사를 위해 내가 한 준비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6월부터 약 반 년간 논술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논술을 준비하기에 짧은 기간이었을 수 있지만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 수학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졌던 습관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는 어려운 수학문제를 풀 때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스로 풀기 위해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문제 풀이 능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어려운 수학문제에 대한 도전정신, 자신감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단순 암기를 통한 공식 활용이 아닌, 수학적 원리를 파악하고 개념을 생각하며 내가 쓴 풀이과정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도 논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리논술 준비를 위해 문제 풀이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시문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리논술 문제들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긴 제시문에 당황할 수 있는 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제시문의 핵심을 파악하는 것이고 주어져 있는 예시가 있다면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시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쓸 수 있도록 연습하였습니다.

논술가이드북 또는 모의논술을 활용하셨나요? (그 외 입학설명회, 대학탐방 등 신청한 행사나 기억에 남는 활동)

여러 대학의 역대 논술 문제를 풀어 보면 알겠지만, 학교마다 논술을 내는 스타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의논술과 역대 논술들을 풀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학교의 스타일, 논술문제의 난이도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논술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시작 전까지 숙대 모의논술과 역대논술을 다시 읽고 풀어보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논술가이드북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논술시험을 보러 가면서 기본적인 정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논술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문제 출제의도와 채점기준 등이 논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숙대는 논술우수자전형에 학생부 교과 성적이 들어가고 수능최저학력도 있으니 꼼꼼히 보는 것은 추천합니다!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수리논술을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대학입시를 위한 논술공부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수리논술의 바탕이 되는 수학문제풀이 연습은 수능수학 공부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수학을 대하는 자신감을 길러 줄 것입니다. 수리논술을 처음 접하고 풀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워 당황하기도 막막하기도 할 텐데요, 꾸준한 문제풀이와 연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시문을 파악하고 요구하는 답안을 정확하고 깔끔하게 작성하는 것! 잊지 마세요.

후배들에게 전하는 응원의 메시지

수리논술을 풀면서 자신이 써 내려갔던 풀이과정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해서 숙대에서 만나요!

3. 논술 출제위원이 들려주는 TIP!

인문계열 논술편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논술을 통해 숙대로 오는 길은 글쓰기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데 있습니다. 글의 내용과 구조, 문장력이 논술에서도 모두 요구됩니다. 논술은 논리적인 글쓰기라는 점에서 논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체계적으로 전개해야 상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논술은 주어진 문제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풀어가는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논술고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기출문제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으로서 논술고사는 정답이 있습니다. 논술고사 기출문제와 모범 답안을 살펴보면 숙대 논술문제 유형에 먼저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모의 논술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도 좋겠습니다. 주어진 시간 내에 주어진 분량에 맞추어 써내야 하는 것이 논술고사이기에 시험 환경에 익숙하도록 모의논술을 통해 연습을 하는 것도 시험을 위한 요령 있는 준비입니다.

논술고사는 ‘시간관리능력’과 ‘의사소통능력’이 관건입니다. 이에 논술 문제를 풀어볼 때 시간을 정해서 실전처럼 답안을 적어보길 바랍니다. 제시문을 읽는 시간, 문제에 맞추어 개요를 짜는 시간, 분량에 맞추어 답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시간분배를 잘 하길 바랍니다. 또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여 문제를 읽고 채점자를 설득하는 마음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최우선입니다. 채점자와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문제 순서에 따라 글의 논리를 세워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논술고사는 효과적인 ‘읽기와 쓰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발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각각의 제시문을 읽어가면서 글의 주장과 핵심 메시지를 파악합니다. 제시문 간의 연관관계를 살펴 보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내적 고리를 발견합니다. 따라서 항상 자료들을 읽어갈 때는 키워드를 찾고 요약하고 정리하는 습관을 키우길 바랍니다. 텍스트의 관점을 찾아 분석해보고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논술 답안을 쓸 때는 문제가 요구한 내용을 포함했는지, 논지가 자연스러운지, 자신의 말로 풀어가고 있는지, 문장은 깔끔하게 표현했는지 점검하며 서술하길 바랍니다. 논술 답안을 평가할 때 수험생들이 요구한 문제에 대해 내용이 충실하게 잘 제시되었는지 전체적으로 단락과 문장 흐름은 매끄러운지 보기 때문입니다.

로마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벼락치기로 논술고사에 합격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평소의 실력이 논술고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텍스트를 읽고 배경지식을 넓히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써보고 다시 고쳐 수정하는 글쓰기 연습 과정이 결과적으로 논술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논술문제는 교육과정에 바탕을 두어 출제되기에 특히 국어, 사회, 도덕 교과와 목차를 살펴 보면서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요령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충실한 것이 논술로 대학에 오는 길에서도 중요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논술은 확률이 낮은 게임입니다. 인풋에 비해 아웃풋이 바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대학은 논술시험을 통해 리더십이 있는 학생을 선발합니다. 논술로 텍스트를 읽어내는 능력과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가는 쓰기 능력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학생이 문제의식을 갖고 스스로 학습하는 역량이 있는지 이를 통해 파악합니다. 이에 논술시험을 단지 대학에 합격하기 위한 방법으로 국한하기에는 그 의미가 큼니다. 논술시험 준비는 자신의 사고와 표현능력을 키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글쓰기 능력은 평생을 두고 키워야 하는 중요한

역량입니다.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과정들을 보다 가치 있게 여기길 바랍니다.

논술은 고등학교의 기본과정을 바탕으로 출제됩니다. 읽기와 쓰기 능력을 동시에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암기식 시험 공부를 하듯이 논술에 매달리지 말고 학문을 하는 기본 토대를 다지듯이 접근하길 바랍니다.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책을 많이 읽고 생각을 깊게 하는 훈련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시대지만 책을 읽는 습관을 갖길 바랍니다. 다양한 배경지식이 있어야만 논술 지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텍스트가 요약된 내용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친구들과 책을 읽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논술시험을 준비하면서 독서토론을 했던 경험은 자신의 사고를 확장해 가는 과정이었기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또한 논술을 준비하며 사회의 흐름에도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세상과 담을 쌓고 교실에서 모범답안을 외운 논술로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생각을 열어 놓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시의적인 주제들이 논술 문제로 출제된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핫이슈들도 살펴보고 현상과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신문을 비교해서 읽어 보는 훈련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시각 차이가 있는 신문들의 사설을 살펴보고 관점을 비교해 보면서 어떻게 주장을 전개하고 있는지 내용을 분석해 보길 바랍니다. 매일 이루어지는 신문읽기 습관은 논술을 준비하는데 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논술은 결국 ‘쓰기 연습’이 최고의 준비라는 점입니다. 꾸준히 계속해서 글을 써보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일필휘지로 단번에 좋은 글을 쓸 수 없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글쓰기를 꾸준히 연습해가는 데 논술 준비의 비법이 있습니다. 좋은 글은 끊임없는 고치는 과정을 통해 탄생합니다. 자신의 글이 객관적으로 어떤지 살펴보면서 퇴고하고 수정하면서 조금씩 나은 글이 됩니다. 피드백을 받고 다시 고쳐 써 보는 과정에서 논술 글쓰기의 근력이 생깁니다. 대학 입학 이후에도 논술은 계속해서 학문적 글쓰기의 바탕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선택을 한 셈입니다.

논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논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시문은 아무 이유 없이 선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제 의도에 적합한 제시문을 목적의식적으로 골라내어 배치하는 것이죠. 출제자가 왜 이 제시문을 여기에 배치했는지 눈치챌 수 있다면, 제시문 파악도 쉽고 답안을 작성하기도 훨씬 용이할 겁니다. 논점은 대개 인류가 그동안 쉽게 풀기 어려웠던 숙제들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민주주의 vs 간접민주주의’, ‘국익 vs. 개인의 자유’, ‘시장주의 vs. 케인스주의’, ‘분배 vs. 성장’, ‘공공성 vs. 효율성’, ‘사생활 vs. 공익’, ‘환경 vs. 개발’ 등과 같은 논점 말이죠. 물론 이러한 논점들은 큰 논점이고, 세부 쟁점들이 또 있습니다. ‘시장주의 vs. 케인스주의’만 해도, 복지국가, 규제, 생산성, 민영화, 시장 개방, 작은 정부론, 재벌 문제, 조세 정책 등 다양한 세부 논점들이 있겠죠. 출제할 때는 큰 논점을 큰 줄기로 잡되, 세부 쟁점들을 정교하게 배치하여 난이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런 논점들에 익숙한 학생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논점을 안다는 것은 인류 역사의 주요 논쟁을 다 파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 공부하라는 말이냐? 여러분들의 불만 섞인 항의가 여기까지 들리는 듯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게 전혀 없습니다. 논술은 고교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논술에서 출제되는 모든 논점들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담겨 있습니다. 교과서를 충실히 학습한 사람이라면 별 어려움 없이 논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이고요. 물론 현실적으로 논술에 대비하여 특화된 공부가 필요하긴 하죠. 교과서의 목차를 보면서 어떤 쟁점이 형성될 수 있는지 예측해 보고, 그것을 노트에 정리해 본다면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경우에 따라 시중에 나와 있는 논술 대비 참고서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정치/사회철학이나 사회사상 관련 책들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종종 시사적인 쟁점이 출제되기도 하니까, 논술 보는 해에 있었던 각종 사건들에 논쟁되었던 쟁점들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시문을 정확히 읽어야 한다!

논술의 목표는 ‘쓰기 능력’과 함께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시문을 읽고 쓰도록 하는 것이죠. 제시문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으려면 아무래도 평소에 독서량이 많은 학생이 유리할 겁니다. 짧은 지문이 아니니까, 긴 글을 빨리 읽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읽어본 적이 있는 제시문이라면 더욱 유리하겠지만, 그렇다고 출제가 가능한 제시문을 빠짐없이 미리 읽어 두겠다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제시문은 보통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선정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시문 중에는 교과서에 있는 글을 그대로 옮겨올 때가 있습니다. 이건 굳이 대비할 필요가 없겠죠. 어차피 읽어본 글일 테니까요. 둘째, 그 다음은 동서양의 ‘고전’인데, 아주 중요한 고전 위주로 미리 읽어두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느 구절에서 제시문이 선정될지 예측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유명한 구절이 자주 출제되곤 합니다. 제시문을 보고, “이건 칸트가 윤리학 관련해서 쓴 어떤 저작에서 인용된 것인가 보다”라는 정도만 파악할 수 있다면 문제가 술술 풀리겠죠? 하지만 고전의 숫자가 매우 많기 때문에 모든 고전을 다 읽어두겠다고 마음먹을 필요까진 없고요. 교과서 내용과 관련된 중요 고전의 핵심 부분을 읽어 두는 정도로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아예 교과서에 실린 고전 문구들은 특히 더 신경 쓰시고요. 셋째, 나머지는 언론기사, 단행본, 논문, 인터넷 등 다양한 곳에서 제시문을 선정합니다.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라!

출제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논술 관련 해설에서 늘 나오는 지침이지만, 또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채점을 해보면 출제의도와 다른 답을 쓰는 학생들이 꽤 됩니다. 채점위원들 입장에서는 별 고민 없이 과감하게 감점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출제 의도와 동떨어진 답안입니다. 비교하라고 되어 있으면 비교를 해야 하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더라도 문제가 지시하는 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논하시오”와 같은 문제는 다소 헛갈릴 수 있는데, 분석하고 평가하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명하라”와는 다소 의미가 다른데요. “논하시오”는 분석과 해설뿐만 아니라 평가도 해보라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 본인의 의견이 덧붙여질 수도 있을 거고요.

반드시 ‘환문’을 하라!

의외로 상당한 감점 요인이 되는 것이 바로 제시문의 문구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경우입니다. 결코 좋은 답안이 아닙니다. ‘표절’이니까요. 물론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해야 하니까 제시문과 ‘같은 내용’을 써야 할 겁니다. 하지만 내용이 같아야 하는 거지 ‘문장’이 같으면 안 됩니다. 논술의 모든 문장은 ‘자기 문장’으로 써야 합니다. 제시문 인용이 필요하면 아예 ‘직접 인용’(큰 따옴표로 표시)을 해야 하고요. 같은 내용을 다른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환문’(paraphrasing)이라고 합니다. 글쓰기에서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논술 채점할 때도 당연히 환문 능력을 봅니다. 채점위원들은 제시문을 수십 번 읽어보면서 채점하기 때문에, 답안에 환문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그대로 베껴 썼는지는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물론 한 단어 한 단어를 모두 환문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주요 개념어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대로 옮겨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소 산술적인 기준을 제시하자면, 제시문에 나와 있는 서너 개 이상의 단어를 순서대로 그대로 베껴 쓰는 것은 웬만하면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0년 논술 문제의 포인트

2020년 논술도 위에서 말씀드린 출제 방법에 따라 출제되었고, 준비 요령도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매년 출제 방향이 조금씩 바뀌는데, 상반기에 실시되는 ‘모의논술’이 그 예고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직전년도 논술과는 다소 다른 유형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지만, 그해의 모의논술과는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해 모의논술만큼 중요한 기출문제는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문학작품’을 제시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문학작품을 활용한 문제는 매년 출제되어 왔습니다. 이런 유형에서 문학작품은 어떤 상황을 제시하는 사례 또는 소재로서 기능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제시문은 그 문학작품에 나와 있는 상황을 분석하는 이론들이죠. 문학작품은 그렇게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시문의 논점이 문학작품의 어떤 구절과 연결되는지를 잘 파악해서 쓰는 것이 관건입니다. 문학작품만 보면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다른 제시문을 먼저 읽어보고 대략의 논점을 파악한 뒤 문학작품 제시문을 읽는 것도 방법일 겁니다. 문학작품은 그 자체를 두고 논평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제시문의 논점에 따라 논평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학작품 해석 자체에 너무 큰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당부 말씀

일단 제시문을 정확하게 읽었고 문제가 지시하는 대로 이행한 답안이라면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더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세부적인 채점 요소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능력, 적절한 표현력, 정확한 어법 및 맞춤법 등도 만점을 받게 하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좋은 답안인데 이런 것들 때문에 감점을 하게 되면 채점자 역시 안타깝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마지막 퇴고와 수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논술에 대해 막막하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출제 방법을 잘 파악하여 거기에 맞게 대비한다면 결코 어려운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최근 논술 문제는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고 일관성을 갖추고 있어, 그 유형에 맞춰 대비한다면 충분히 잘 준비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시험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연계열 논술편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작게는 수학적인 소양을 길러 계산 능력 및 문제해결력을 증진하여야 합니다. 크게는 ‘나’라는 존재는 ‘너’라는 존재와 같고 ‘우리’라는 공동체 안에 포함됨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끊임없는 자아성찰을 통해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인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밝은 미래를 향해 노력하길 바랍니다.

2020학년도 문항 특징

이차방정식, 수열, 미분, 직선, 평면, 원, 구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입니다. 본 문항들은 수학 I, 수학 II, 미적분 I, 미적분 II, 기하와 벡터 등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들로부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따라서 본 문항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문을 읽고 이차방정식, 수열, 미분, 직선, 평면, 원, 구에 대한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수학은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 왔습니다. 수학은 수학의 개념, 원리, 법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주변의 여러 현상들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수학은 기초 및 원천 기술을 개발하거나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문입니다.

수학을 학습할 때에는 하나의 개념을 배우더라도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다른 개념과 연관지어 생각해 보며 끈기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다른 방법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토론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수학을 학습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의성과 인성을 겸비한 인재로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수학 교육에서는 최근 세계 동향에 맞추어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여러 과목의 연계성을 중요시하고 학습 동기유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수업, 실생활에 적용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과서 중심을 통한 학습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또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며 수험생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IV. 2020학년도 논술시험 기출문제 분석

1. 논술시험 출제의도

최근의 대학교육은 창의적인 인재를 요구하는 현대 지식기반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공 및 교양 교육에서 폭넓은 사고력에 바탕을 둔 원활한 의사소통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논술시험은 이러한 대학교육에 필요한 기초적 자질로서의 정확한 독해력, 논리적·비판적 사고력, 그리고 설득력 있는 표현능력을 평가함으로써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능력과 창의력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자질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번 논술시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첫째, 2007년부터 시행된 통합논술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따른다. 교과지식의 단순 반복학습과 암기를 통해 습득된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학생 스스로 탐구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독서와 토론을 통한 사고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효과적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연계와 인문계 지원자 모두 답해야 하는 공통논술은 문학을 포함한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의 글로 제시문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통합적으로 사고하고 표현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자연계의 제시문도 수학적 원리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수리나 자연현상을 논리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부합하고, 그것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답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자 노력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최대한 반영하는 문제를 구성하여, 실제 공교육의 교과과정에서 배우는 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구체적인 현실문제나 보편적인 인간상황에 적용하여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문제의 특성상 주로 교과서에 실리지 않은 제시문을 채택하였지만, 제시문의 핵심요지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가를 고려하였다. 출제과정에서 고교 교사들이 검토위원으로 참여하여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너무 생소하거나 어려운 지문보다는 정상적으로 고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을 선정하였다. 지문의 내용은 인류의 고전(古典)에서부터 동시대의 사회적 의제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하게 배치하였다.

셋째, 평가의 객관성을 고려하여 채점의 기준을 최대한 객관화시킬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양한 유형과 학문영역의 텍스트들이 일관성 있는 주제나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어 수험생들이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객관적 기준을 설정할 수 있도록 제시문을 구성했다. 또한 논술시험 평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인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제시문과 제시문, 제시문과 논제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논제의 표현을 정밀하게 함으로써, 논술능력의 합리적 평가와 공정한 채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올해 논술시험은 지난해와 달리 각 계열별로 존재했던 공통문항이 제외됨에 따라 인문계열 지원자의 경우 인문계열문항 2문항, 자연계열 지원자의 경우 자연계열문항 1문항에 각각 답하게 된다. 인문계열문항은 문항 당 3개의 제시문과 1개의 논제로 이루어졌다. 자연계 계열문항은 3개의 제시문과 1개의 논제로 구성되었으며, 세부문항이 존재한다.

인문계 논술(의류학과 포함)은 인문학과 사회과학에서 발췌한 다양한 텍스트의 의미를 그 고유한 방식에 따라 이해하는 능력과 그것을 설득력 있게 논증하고 비판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 논술에서는 주어진 제시문을 통해 특정한 사회현상이나 논점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자연계 논술(의류학과 제외)은 자연과학의 언어라 할 수 있는 수학의 기초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수학적 풀이과정과 자연과학적 탐구과정을 연계하여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려 하였다. 제시문에서 다루어지는 수학 관련 내용은 고등학교 공통수학 수준의 수리능력을 지닌 학생이라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였다.

2. 논술시험 기출문제 및 해설

<인문계열 1회차 문항1>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국어, 생활과 윤리, 사회
	핵심개념 및 용어	배려, 사랑, 동물, 생태중심주의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비슷한 자연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 못지않게 타인을 배려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평등한 사물은 모두 동일한 척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들이 그들 자신의 영혼에 바라는 것만큼 선한 것을 받기를 바라기 마련이라면, 똑같은 본성을 지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심할 여지없이 존재하는 비슷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의 욕망의 일부분이라도 만족시킬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 욕망에 어긋난 것을 내가 그들에게 제공한다면, 내게 그럴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내가 해를 가하면 나 역시 고통을 당할 것을 상호 간에 예상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그들에게 보여준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배려를 그들이 내게 보여줄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나와 평등한 사람들로부터 되도록 많은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나의 욕구는 그들에 대해서도 그와 비슷한 만큼을 충분히 베풀어야 한다는 자연적인 의무를 내게 부과한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내가 베푸는 배려를 동일하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그런 것을 과하게 행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연의 이성인 우리들 자신 및 우리 자신과 마찬가지로인 그들 간의 평등한 관계에 따라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 두었다.

<존 로크(John Locke), 『통치론』 중에서>

<나>

종차별주의(種差別主義, speciesism)란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종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다른 종의 이익을 배척하는 편견 또는 왜곡된 태도를 말한다. 인종차별주의(人種差別主義, racism)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의의 핵심은 종차별주의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함이 분명하다. 설령 어떤 사람이 좀 더 나은 지적 능력을 소유했다고 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 상대방을 수단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설령 인간이 좀 더 나은 지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그로 인해 인간에게 인간 아닌 존재를 착취할 권한이 부여되지는 않는 것이다.

많은 철학자들과 저술가들은 이런저런 형태의 이익 동등 고려의 원리를 기본적인 도덕 원리로 내세웠다. 하지만 그들 중 일부만이 이러한 원리가 우리 자신 외의 다른 종 구성원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감지했다. 벤담은 이를 감지한 몇 안 되는 사람 중의 하나였다. 미래를 내다보는 듯한 구절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인간 아닌 동물들이 폭군의 손이 아닌 이상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권리를 획득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프랑스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검다는 사실이 “괴롭히는 사람이 제멋대로 행동함으로써 입게 된 피해를 아무런 보상 없이 방치해도 무방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이미 깨닫고 있다. 언젠가는 다리의 숫자, 피부가 털로 뒤덮였는지의 여부, 또는 꼬리가 있는지의 여부 등이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가혹한 운명을 맞이하도록 방치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을 통해 그들의 권리가 평등하게 배려되어야 하는가를 정할 수 있을까? 이성 능력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인가? 하지만 완전

히 성장한 말이나 개는 갓난아기 또는 생후 일주일이나 한 달이 된 유아에 비해 훨씬 합리적이며, 우리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하지만 설령 그들의 능력이 다르더라도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문제는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사고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대화를 나눌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다. 문제는 그들이 고통을 느낄 수 있는가이다.

위의 구절에서 벤담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의 유무’를 어떤 존재가 평등한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를 가능하는 핵심적인 특징으로 꼽고 있다.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언어 능력 또는 고차원의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른 특징이다. 그는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가진 모든 존재들을 고려함으로써 그 존재들의 권리를 배제하지 말아야 함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다.

<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부분을 배려해야 한다. 햇살 속에 반짝이는 소나무들, 모래사장, 검은 숲에 걸려 있는 안개, 눈길 닿는 모든 곳, 잉잉대는 꿀벌 한 마리까지도 우리의 기억과 가슴속에서는 모두가 신성한 것들이다. 나무 속에 흐르는 수액은 우리들의 기억을 고스란히 실어 나른다.

우리가 죽어서도 이 아름다운 땅을 결코 잊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땅의 한 부분이며, 땅은 우리의 한 부분이다. 향기로운 들꽃은 우리의 자매이다. 사슴과 말과 독수리는 우리의 형제들이다. 바위산 꼭대기, 강의 물결과 초원에 핀 꽃들, 조랑말과 인간은 모두가 하나다. 개울과 강을 흐르는 이 반짝이는 물은 그저 물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피다.

물결의 속삭임은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가 내는 소리이다. 강은 우리의 형제이고 우리의 갈증을 풀어준다. 카누를 날라주고 자식들을 길러준다. 우리는 연못 위를 쏜살같이 달려가는 부드러운 바람 소리와 한낮의 비에 씻긴 바람이 머금은 소나무 내음을 사랑한다. 만물이 숨결을 나누고 있는 것이기에 공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다.

짐승들, 나무들, 그리고 인간은 같은 숨결을 나누고 산다. 우리의 할아버지에게 첫 숨결을 베풀어주었던 바람은 그의 마지막 한 숨결도 받아주었다. 바람은 또한 우리의 아이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준다. 땅은 우리 어머니이기에, 땅 위에 닦친 일은 그 땅의 아들들에게도 닦칠 것이니, 우리가 땅에다 침을 뱉으면 그것은 곧 자신에게 침을 뱉는 것과 같다.

자연은 인간과 이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만물은 마치 한 가족을 맺어주는 피와도 같이 맺어져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인간은 생명의 그물을 짜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그물의 한 가닥에 불과하다. 그가 그 그물에 가하는 행동은 곧 그 자신에게 하는 짓이다.

1. <가>, <나>, <다>의 공통점을 찾고, <나>와 <다>의 각각의 관점이 <가>와 변별되는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는 우리는 어떤 범주까지를 배려하며 살아야 하는가, 또 그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담고 있다. <가>에서는 존 로크의 글을 통해 ‘우리는 사람을 배려’해야 하며 그 까닭은 ‘내가 남에게 원하는 것은 남 또한 내게 원할 것’이라는 호혜적 원리가 있기 때문임을 보였다. <나>에서는 피터 싱어의 글을 통해 ‘우리는 동물을 배려’해야 하며 그 까닭은 ‘동물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임을 보였다. <다>에서는 ‘자연의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진 글을 실었다. 인디언 추장이 쓴 것으로 알려진 이 글은 ‘사람, 동물’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배려’해야 함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까닭은, 이 글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그물처럼 이어진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가>는 인간을, <나>는 동물을, <다>는 ‘식물 나아가 땅 같은 무생물까지도’ 배려하자는 내용인데, 학생들이 이렇게 배려의 범주가 확장되는 것을 인지하는가, 또 그렇게 확장해야 하는 글쓴이들의 핵심적인 이유를 포착할 수 있는가를 묻고자 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중 국어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관련 성취기준	1.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1) 사회를 바라보는 창 (가) 개인 이해 인간은 각각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존엄한 존재이면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임을 이해하여, 시민 사회에서 성숙하게 행동할 수 있는 의식을 갖도록 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삶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며, 더 나아가 타인과 사회 공동체 및 자연환경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임을 인식한다. ① 자신의 가치와 역할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 확립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자신의 현 상황(가치, 비전, 장단점 등)을 반성적으로 살펴본다. ②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 관계 및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들과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방법을 파악하며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을 인식한다. ③ 개인을 둘러싼 자연 생태 환경을 이해하고 자연 환경과의 공존 필요성을 파악한다. (56쪽) 사회1212.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가>
	2.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3) 과학 기술·환경·정보 윤리 (나) 인간과 자연의 관계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주의를 넘어서 윤리적 고려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동물, 생명, 생태계를 윤리적으로 배려하는 탈인간중심주의적 자연관과 가치 태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동물중심주의 윤리, 생명중심주의 윤리, 생태중심주의 윤리의 특성과 문제점을 조사·분석한다. ① 도구적 자연관과 인간중심주의 윤리 ② 동물중심주의 윤리와 환경 문제 ③ 생명중심주의 윤리와 환경 문제 ④ 생태중심주의 윤리와 환경 문제 ⑤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윤리적 자세 (38쪽) 고생32. 동물중심주의 윤리, 생명중심주의 윤리, 생태중심주의 윤리의 특성과 문제점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한 탈인간중심적인 자연관과 환경 문제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윤리적으로 배려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나>
	3.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14) 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인간은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되어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환경 문제, 다문화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문학 활동을 통해 현재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타인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한다. (140쪽) 310514-1.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문학 작품을 읽고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상황과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통치론	존 로크 (강정인, 문지영 옮김)	까치	2015	12-13	제시문<가>	×
동물해방	피터싱어 (김성한 옮김)	연암서가	2018	35-37	제시문<나>	×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류시화	김영사	2003	15-34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4	47-50	제시문<가>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123-135	제시문<나>	○
고등학교 문학	윤여탁 외	미래엔	2014	384	제시문<다>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가> : 존 로크 지음, 강정인·문지영 옮김, 『통치론』, 까치, 2015, 12-13쪽

<가>는 존 로크의 『통치론』에서 인용한 글로,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남들도 원할 것이기에 우리는 남들에게도 내가 원하는 것을 베풀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 원리를 통하여 볼 때, 우리는 ‘같은 수준을 가진 인간을 배려’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확장하면 ‘남이 내게 해 줄 가능성이 없는 것은 내가 남에게 해 줄 필요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배려의 범주가 한정되게 된다. 가령 ‘동물에 대한 배려’가 그것인데, ‘동물을 배려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을 위의 기준에서 답한다면 ‘동물은 배려의 대상이 아니다’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에게 어떤 배려를 베풀었을 때 그들 또한 우리에게 동등한 정도의 배려를 베풀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제시문<나> : 피터 싱어 지음, 김성한 옮김, 『동물해방』, 연암서가, 2018, 35-37면

<나>는 <가>의 배려 범주를 보다 확장하고 있다. <나>의 배려 범주는 ‘동물’을 포함하게 되는데, 그것은 배려의 기준을 ‘고통의 인지 여부’에 두기 때문이다. <나>에 의하면 ‘이성’이라든가, ‘담화 능력’, 또는 생김새 등은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는데, 만약 이성 등을 기준으로 둔다면 성숙한 강아지나 동물들이 미성숙한 갓난아기보다 더 우대받아야 한다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고통’을 기준으로 둘 수 있는데, 아이나 동물이나 고통을 느낄 줄 아는 존재라는 점에서 모두 동등하게 배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결국 이 기준은 배려의 범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한다 하겠다.

제시문<다> : 류시화 엮음,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김영사, 2003, 15-34쪽

<다>는 <나>를 넘어 배려의 범주를 식물, 무생물 등 자연 전반에 걸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두고 있다. 그에게는 가족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무생물이나 모두가 하나의 그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하지 않으며 그들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자 한다. 이런 태도가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상적인 발상이기는 하지만,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벗어나 나와 나를 둘러싼 환경 모두를 ‘우리의 중심’에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논제의 구성

문제는 “<가>, <나>, <다>의 공통점을 찾고, <나>와 <다>의 각각의 관점이 <가>와 변별되는 점에 대해 기술하시오”로 내었는데, 각 지문의 공통점이 ‘나와 내 주변에 대한 배려와 그 이유’에 대한 것이란 점을 짚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나>와 <다>의 지문들이 지닌 관점이 <가>와 어떻게 다르며 어떤 기준으로 인해 달라졌는지를 기술할 수 있는가를 보고자 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답안의 기본 요소 -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표현력이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① <가>, <나>, <다>의 공통점을 “우리는 어느 범주까지를 배려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로 적고 있는가? ② <가>의 배려의 범위는 인간이며, 그 이유(또는 기준)은 ‘내가 준 만큼 받을 수 있는 존재인가(호혜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존재인가)’를 파악하고 있는가? ③ <나>의 배려의 범위는 동물이며, 그 이유(또는 기준)은 ‘고통의 인지 여부’임을 파악하고 있는가? ④ <다>의 배려의 범위는 식물 나아가 무생물까지를 포함하며, 그 이유는 ‘우리는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임을 파악하고 있는가? ⑤ <나>와 <다>의 관점이 <가>의 인간중심주의 세계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는가?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정확히 기술하고 있으며 단락 구분 및 정서법이 정확한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정확히 기술하고 있으나, 단락 구분 및 정서법이 부정확한 경우	2등급
	1등급과 동일하되, ⑤가 누락된 경우	3등급
	2등급과 동일하되, ⑤가 누락된 경우	4등급
	1등급과 동일하되 기준 ①, ⑤가 누락된 경우	5등급
	2등급과 동일하되 기준 ①, ⑤가 누락된 경우	6등급
	②, ③ 중 어느 하나가 누락된 경우	7등급
	②, ③이 모두 누락된 경우	8등급
	300자 이하	9등급

※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9등급 처리함.

<가>는 우리가 왜 우리와 같은 종들, 즉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나>는 우리와 다른 종들, 즉 동물들을 왜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자연물을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따라서 <가>, <나>, <다>는 공통적으로 ‘우리는 왜 나 혹은 우리 이외의 존재를 배려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런데 <나>와 <다>의 관점은 <가>와 변별되는 점이 있다. 이는 ‘배려의 범주와 이유’ 측면에서 말할 수 있다. 먼저 <나>의 관점은 <가>에 비해 ‘배려의 범주’가 넓다. <가>가 ‘인간끼리의 배려’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에 반해 <나>는 ‘동물에 대한 배려’까지 생각하고 있다. 이렇듯 <나>의 범주가 넓어진 것은 ‘배려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에 서는 나 아닌 존재를 배려해야 하는 이유로 ‘내가 해 준 만큼을 받을 수 있는가’ 즉, 호혜의 원칙을 들고 있지만 <나>는 ‘고통을 느끼는 존재’란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가>의 이유에 따르면 우리는 동물을 배려할 이유는 없다.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도 그들이 우리를 동일하게 배려해 주리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의 이유에 따르면 우리는 동물을 배려해야 한다. 그들 또한 고통을 느낀다는 점에서 우리와 동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의 관점 또한 <가>에 비해 ‘배려의 범주’가 넓다. 그 범주는 동물을 넘어 식물과 무생물로까지 확대되어 있다. 배려의 범주가 넓어진 까닭은 ‘배려의 이유’가 <가>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가>는 나와 타인의 호혜적인 주고 받음이 그 이유지만, <다>는 나와 세상 모든 것은 거미줄처럼 엮여 있다고 보는 믿음이 그 이유가 된다. 이 이유에서 <다>는 ‘평등한 능력을 지닌 존재’끼리만 아닌 내 주변의 모든 것에 대한 배려도 가능하게 된다. 사람이건 자연물이건 모두가 엮여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나>와 <다>의 관점은 동물, 식물 및 무생물 등을 배려하고자 함으로써 <가>가 지닌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확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1035자]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1회차) / 문항(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 법과 정치
	핵심개념 및 용어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 약자, 존엄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분하였는데, 그의 자유에 대한 논의는 이후 서구 정치 철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소극적 자유란 외부 강제의 부재다. 즉, “어떤 사람 또는 집단이 다른 사람의 간섭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방임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소극적 자유의 의미와 내용이 드러난다. 이는 외부의 강제가 없는 상태, 다시 말해 타자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는 상태이다. 한 개인의 행동을 강제하는 것은 자유의 박탈이다.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내 활동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만큼 자유롭다고 여긴다. 즉, 개인은 불간섭의 범위 안에서만 자유로운 것이다. 타자가 개입하지 않으면 개인에게 더욱 많은 선택과 기회가 가능하므로 더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노예는 자신의 영역에서 극히 제한을 받거나 강제를 받는다.

적극적 자유란 “한 사람에게 이것 말고 저것을 하게끔, 이런 사람 말고 저런 사람이 되게끔 결정할 수 있는 통제와 간섭의 근원이 누구 또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그 의미와 내용이 드러난다. 적극적 자유란 자신이 자신에 대해 온전한 주인이 되어 자신의 본래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의 소원에 뿌리를 둔다. 나는 내 인생 및 결정이 나 자신에 의하여 좌우되기를 바라지, 어떤 종류가 되었건 외부의 힘에 의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나는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 내가 선택한 것에 책임을 지고, 나 자신의 생각과 선택에 따라 결정하는 능동적인 존재로서 나 자신을 인식하고 싶어 한다. 소극적 자유가 ‘~로부터의 자유’라고 한다면, 적극적 자유는 ‘~로의 자유’이다.

<나>

자유를 행위자에게 주어진 형식적인 선택지의 범위로 파악하는 것은 실제로 행위자가 그 자유를 달성하거나 향유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를 회피하게 만든다. 문이 밖에서 잠겨 있지 않다는 것과 행위자가 실제로 그 문에 접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명백히 다른 것으로서, 외적 간섭의 부재는 행위자가 그 선택지를 실현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는다. 걷기가 어려운 장애인이 실제로 이동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의 이동을 돕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며, 장기실업자가 실제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지식과 기능을 습득해야만 하는 것이다.

‘간섭의 부재로서의 자유’와 ‘실제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을 구별한다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의 조건이 매우 불평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자유라고 한다면, 외부 개입의 부재는 자유의 조건 중 한 부분에 불과하다.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로 사람들은 자원에 접근하는 능력이나 획득된 자원을 자유로 전환하는 능력에서 평등하지 않다. 동일한 자원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가령 심신장애나 병의 유무 등에 따라 사람들이 획득할 수 있는 역량, 즉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유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 바꿔 말하면, 장애나 질병 등 남보다 불리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남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한다.

<다>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의무를 진다는 것은 그저 장애인을 배려하라는 말이 아니라, 장애인이 그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존중하라는 요구와도 같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이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서 자원 분배를 평등하게 한다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성 보장만이 문제라면, 계단이 10개 있는 회사에 장애인이 다니게 되었을 때 동료 직원들이 그 장애인을 번쩍 안거나 업어서 사무실까지 옮겨주는 것만으로도 ‘정당한’ 편의 제공이 성립할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은 ‘정당한 편의 제공’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그런 방식은 장애인을 사무실로 들어가게는 하지만, 그가 휠체어를 자기 몸의 일부로, 일종의 ‘스타일’로 삼아 오랜 기간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으로서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왔다는 점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장애인 운동은 ‘이동권’을 공식적 법적 개념으로 만들어냈고,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인의 고유성을 무시하고 획일성을 강제하는 것에 대해 저항해왔다.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인정받지 못했던 이들이 자신의 몸과 정신적 특성, 독특한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존의 장애인 정책에 맞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최근 20여 년 사이에 일어난 이러한 변화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유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배제되는 무수히 많은 ‘잘못된 삶’들이 스스로 자기 존엄을 선언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존중하는 사람들과의 일상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각자가 가진 결핍을 ‘수용’하는 윤리적 결단을 바탕으로 우리의 존엄을 서서히 확고하게 각인시켜왔다.

2. <가>를 활용하여 <나>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이사야 별린이 자유의 두 가지 개념으로 제시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에서 출발하여,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실질적 조건에 대해 논술하도록 하는 문제로 고안되었다. 소극적 자유가 자유의 원형으로 이해되기도 하지만, 단순히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만으로는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긴 어렵다.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설명한 제시문 <가>와 소극적·형식적 자유의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 자유의 조건을 제시한 제시문 <나>를 활용하여 이러한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이해하고 논술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려고 했다. 특히, 불평등한 조건을 가진 사회적 약자가 실질적인 자유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개입과 간섭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런데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개입’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현대 복지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인간 존엄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맹목적인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시문 <다>는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글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사례를 통해, 단순히 이동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넘어, 그 지원 과정에서 장애인의 자기 이야기, 즉, ‘자기 이야기’, 즉 그 고유성, 독립성, 주체성,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은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모든 정책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제시문 구성을 통해, 자유의 의미를 이해하고 현대사회에서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숙고해보고, 이를 논술할 수 있는지 평가해보는 것이 본 문항의 출제 의도이다. 고교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 법과 정치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자유, 평등, 정의, 사회적 약자, 존엄의 개념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면 제시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논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법과 정치]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table><tr><th colspan="2">과목명: 생활과 윤리</th><th>관련</th></tr><tr><td>성취기준 1</td><td>(ㄹ)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 부패 방지 등이 중요함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및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인권 침해, 차별, 폭력,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 윤리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① 인권 존중의 윤리적 의미 (40쪽) 고생42.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관점들을 이해하고,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td><td>제시문 <가></td></tr><tr><td>성취기준 2</td><td>(ㄹ)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 부패 방지 등이 중요함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및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인권 침해, 차별, 폭력,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 윤리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② 차별과 역차별,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40쪽) 고생43. 인권, 역차별,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td><td>제시문 <나> 제시문 <다></td></tr></table>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ㄹ)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 부패 방지 등이 중요함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및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인권 침해, 차별, 폭력,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 윤리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① 인권 존중의 윤리적 의미 (40쪽) 고생42.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관점들을 이해하고,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가>	성취기준 2	(ㄹ)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 부패 방지 등이 중요함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및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인권 침해, 차별, 폭력,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 윤리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② 차별과 역차별,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40쪽) 고생43. 인권, 역차별,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나> 제시문 <다>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ㄹ)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 부패 방지 등이 중요함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및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인권 침해, 차별, 폭력,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 윤리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① 인권 존중의 윤리적 의미 (40쪽) 고생42.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관점들을 이해하고,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가>								
	성취기준 2	(ㄹ)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 부패 방지 등이 중요함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및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인권 침해, 차별, 폭력,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 윤리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② 차별과 역차별,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40쪽) 고생43. 인권, 역차별,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나> 제시문 <다>								
<table><tr><th colspan="2">과목명: 윤리와 사상</th><th>관련</th></tr><tr><td>성취기준 1</td><td>(ㄹ) 사회 정의 현대의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정의임을 알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의관을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토론한다. ② 소유 권리로로서의 정의 및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57쪽) 고윤45. 현대 사회 제도에서 정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이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td><td>제시문 <가></td></tr></table>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ㄹ) 사회 정의 현대의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정의임을 알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의관을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토론한다. ② 소유 권리로로서의 정의 및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57쪽) 고윤45. 현대 사회 제도에서 정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이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가>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ㄹ) 사회 정의 현대의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정의임을 알고,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지닌다. 이를 위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정의관을 조사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토론한다. ② 소유 권리로로서의 정의 및 복합 평등으로서의 정의 (57쪽) 고윤45. 현대 사회 제도에서 정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정의로운 사회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이것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가>									
2. 사회과 교육과정											
<table><tr><th colspan="2">과목명: 사회</th><th>관련</th></tr><tr><td>성취기준 1</td><td>(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①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53쪽) 사회1221.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td><td>제시문 <나> 제시문 <다></td></tr><tr><td>성취기준 2</td><td>(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②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합리적으로</td><td>제시문 <가> 제시문 <나></td></tr></table>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기준 1	(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①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53쪽) 사회1221.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성취기준 2	(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②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제시문 <가> 제시문 <나>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기준 1	(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①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인식한다. (53쪽) 사회1221.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 자유를 비롯한 다양한 권리가 필요함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성취기준 2	(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②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제시문 <가> 제시문 <나>									

	과목명: 사회		관련
		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54쪽)	
		사회1222. 개인의 자유와 국가의 정책이 대립하거나 갈등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성취기준 3	(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운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④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예: 장애인 고용제, 공정 거래 제도, 국토 균형 개발 등)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료화한다. (54쪽)	제시문 <나>	
		사회1224.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	
	과목명: 법과 정치		관련
성취기준 1	(3) 헌법의 기본 원리 우리나라 민주 정치의 토대로서 헌법의 의의를 이해하고,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파악하도록 한다. 또한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및 통치 구조에 대해서 학습함으로써, 민주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도록 한다. (4) 기본권과 의무의 종류와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그 한계를 파악한다. (146쪽)	제시문 <가> 제시문 <나>	
		법1232. 기본권과 의무의 종류를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이해하고,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의 조건과 한계를 설명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왜 다시 자유여야 하는가? - 밀의 자유론: 사유와 비판	정재각	박영사	2019	221-222	제시문 <가>	○
자유란 무엇인가: 벌린, 아렌트, 푸코의 자유 개념을 넘어서	사이토 준이치 (이혜진·김수영·송미정 역)	한울 아카데미	2011	76-80	제시문 <나>	○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사계절	2018	241-242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184-188 196-201	제시문 <가>, <나>, <다>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6	152-155 162-165	제시문 <가>, <나>, <다>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6	224-229	제시문 <가>	○
윤리와 사상	박효종 외	교학사	2015	200-207	제시문 <가>	○
사회	박운진 외	지학사	2015	44-59	제시문 <가>, <나>, <다>	○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5	42-61	제시문 <가>, <나>, <다>	○
법과 정치	손병로 외	금성출판사	2015	98-107	제시문 <가>, <나>	○
법과 정치	김왕근 외	천재교육	2016	100-107	제시문 <가>, <나>	○

■ 제시문 요약

<가> 정재각, 『왜 다시 자유여야 하는가? - 밀의 자유론: 사유와 비판』, 박영사, 2019, 221-222쪽

제시문 <가>는 정치철학자 이사야 벌린이 제시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소극적 자유는 ~로부터의 자유이며, 외적 강제의 부재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를 말한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로의 자유,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제로 하게 하는 자유이며, 자유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중요하다고 본다.

<나> 사이토 준이치, 『자유란 무엇인가: 벌린, 아렌트, 푸코의 자유 개념을 넘어서』, 이해진·김수영·송미정 역, 한울아카데미, 2011, 76-80쪽

제시문 <나>는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비판하고 실질적으로 자유의 조건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자유가 달성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외적 강제가 없는 상태만으로는 자유가 달성되지 않으며, 실제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컨대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많은 자원이 제공되어야 실질적으로 자유를 향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 김원영,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사계절, 2018, 241-242쪽

제시문 <다>는 장애인의 예를 들어 자유의 조건을 제시하는 글이다.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는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 이동이 가능할 수 있어야 실질적으로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동의 자유를 넘어 장애인의 ‘자기 이야기’, 즉 그 고유성, 독립성, 주체성,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장애인의 존엄성이 보장될 수 있는 지원이어야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 논제의 구성

본 문항의 주제는 ‘자유’의 의미와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이며, 이를 적절히 이해하고 논술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를 활용하여 <나>를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논지를 평가하시오. (1,000±100자)

답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나>를 설명해야 하는데, <가>에서 제시된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가>의 적극적 자유와 <나>의 실질적 자유의 조건을 활용하여 논술해야 한다. 소극적 자유의 한계와 그 대안으로서의 자유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논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앞에서 논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의 논지를 평가해야 하는데, <다>는 적극적·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려고 할 때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다>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맹목적인 지원과 개입이어서는 안 되며, 장애인의 ‘자기 이야기’, 즉 그 고유성, 독립성, 주체성,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리고 다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정책에서도 이 점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의 적극적 자유와 <나>의 실질적 자유가 놓치기 쉬운 점을 <다>가 지적하면서 존엄성이 보장되는 진정한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논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 참조: 장애인 이동과 관련하여, 제시문 <가>, <나>, <다>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제시문				
<가>	소극적 자유	장애인 이동을 금지·방해하지 않음		
<나>	실질적 자유	상동	장애인의 이동이 실제로 가능하게 하도록 적절한 자원 제공됨 (예: 장애인 보조인, 휠체어, 리프트, 경사로, 엘리베이터 등)	

<다>	존엄이 고려된 자유	상동	상동	장애인의 고유한 특성·주체성을 보장할 방법이 제공됨. (예: 장애인을 안거나 업어서 이동시킨다면, 그의 고유한 삶 존중되고 존엄이 보장되었다고 할 수 없음)
-----	------------	----	----	---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답안의 구성요소 - 답안이 논제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 답안 구성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인가 - 답안의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를 활용하여 제시문 <나>를 설명] ① 소극적 자유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함 - ~로부터의 자유, 외적 강제의 부재와 불간섭으로서의 자유 - 제시문 <가> ② 적극적 자유의 의미와 내용을 설명함 - ~로의 자유, 외부 개입의 부재만으로는 자유가 달성되지 않음, 자기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 될 수 있는 자유 -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 ③ 실질적 자유의 의미와 내용을 논술함 - 실제로 자유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실제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이 제공되어야 함, 자유를 실질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자원이 제공되어야 함,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더욱 많은 자원이 제공되어야 실질적으로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음. - 제시문 <나> • Key Word : 제시문 <가> 소극적 자유: 외부의 강제, 자유의 박탈, 불간섭, 선택과 기회, ~로부터의 자유 적극적 자유: 의지, 소원, 주체, 능동적 존재, 이성을 가진 존재, ~로의 자유 제시문 <나> 실제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조건, 자유의 조건, 자유의 실질적 향유, 자원에서의 불평등, 실질적 자유 [제시문 <다>의 논지에 대한 평가] ④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의 의미를 설명함 - 장애인이 사회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된다는 조건 하에서만,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음 ⑤ ‘정당한’ 편의 제공의 의미를 논술함 - ‘정당한’ 편의 제공이 되려면 단순히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자기 이야기’, 즉 그 고유성, 독립성, 주체성,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즉, 장애인의 존엄성이 보장되어야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음 ⑥ 다른 사회적 약자의 자유 보장을 위한 조건을 논술함 - 실질적 자유의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에게 사회적 자원을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때에도 그 고유성, 독립성, 주체성,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그 존엄성이 충분히 존중되어야 함. • Key Word : 정당한 편의 제공, 사회적 자원, 실질적 자유, 이동권, 인간존엄성, 존엄, 독립성, 주체성, 고유성, 특성 ⑦ 언어 사용과 표현력 - 제시문의 내용을 활용하되, 본인의 문장으로 충분히 환문하여 자신의 글을 써야 함 ⑧ 논리적 서술 - 제시문 <가>,<나>,<다>의 연관성을 잘 파악하여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함. - 특히, <나>가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논리적으로 서술되어야 하며, <다>가 <나>의 실질적 자유를 맹목적으로 추구할 때 간과될 수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 충분히 서술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을 모두 충족시킨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를 충족시켰으나 ⑦(자신의 문장으로 기술) 또는 ⑧(논리적 서술)이 다소 부족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을 충족시켰으나 ⑦, ⑧이 모두 다소 부족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을 충족시켰으나 ⑤, ⑥, ⑦, ⑧이 다소 부족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충족시켰으나 ④, ⑤, ⑥, ⑦, ⑧가 다소 부족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가 모두 다소 부족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가 다소 부족하며, ④, ⑤, ⑥, ⑦, ⑧가 상당히 미흡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가 모두 상당히 미흡한 경우	8등급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를 모두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9등급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9등급 처리함.	

7. 예시 답안

<가>에 따르면, 자유에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라는 두 가지가 있다. 소극적 자유는 외부의 간섭이나 개입이 없는 상황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반면 적극적 자유는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제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 <나>는 단지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를 달성했다고 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극적 자유의 한계를 지적한다. 자유를 향유한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단순히 방해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어진 기회를 실제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자유는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등,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외적 강제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자유를 누릴 수 없으며, 그 불리한 조건을 해소하기 위한 어떤 자원이 제공되어야 자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실질적 자유는 개입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적절한 개입 또는 지원이 제공된다는 조건에서만 보장된다는 것이다.

<다>는 한발 더 나아가,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조건을 좀 더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는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동을 금지하거나 방해해도 안 되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회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편의를 제공할 때 장애인이 살아온 삶의 고유한 방식이 존중되어야 한다. 장애인의 자기 이야기, 즉 그 고유성, 독립성, 주체성, 특성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비로소 그 존엄이 보장된 ‘정당한’ 편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약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사회적 자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존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세심하게 고려되어야만,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1,022자]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1)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도덕, 사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빈곤, 소셜 믹스, 불평등, 공동체, 시민의식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고도로 양극화되고 불평등한 우리 사회에서 빈민들은 경제적 우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빈민들은 부자들을 텔레비전이나 잡지 표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지만, 부자들은 빈민을 볼 기회가 거의 없고 일부 공공장소에서 마주친다 해도 가난하다는 걸 눈치채기가 쉽지 않다. 중고품 위탁 판매점과 월마트 같은 상점들 덕분에 빈곤층은 실제보다 더 여유 있는 계층처럼 보이도록 치장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40년 전에는 도심과 애팔래치아 산맥에 흩어져 있는 빈곤 지대를 다룬 ‘빈곤의 발견’이 가장 인기 있는 기사 주제였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빈곤 지대의 ‘사라짐’을 다루고 있는 기사를 볼 가능성이 더 높은데, 이는 이른바 중산층의 상상력 부족 때문이다.

부자들이 빈민들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빈민들과 공유하는 서비스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부자들이 빈민을 보지 못하는 이유로 꼽힌다. 공립학교와 기타 공공 서비스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면서 여유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고, 여가 시간을 전처럼 동네 공원에서 보내는 대신 회원제 헬스클럽과 같이 출입이 통제되는 공간에서 보낸다. 그들은 버스나 지하철도 이용하지 않는다. 여러 인종이 함께 모여 사는 동네를 떠나 멀리 교외로, 주민들만 출입할 수 있게 담장을 둘러친 고급 주택 단지로, 혹은 경비가 있는 고층 아파트로 주거를 옮긴다. 또 ‘시장 세분화’라는 흐름에 맞춰 부자들을 겨냥한 상점에서만 쇼핑을 한다. 부자집 아이들도 여름방학 동안 인구의 ‘나머지 반’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볼 목적으로 인명 구조원이나 웨이트리스나 호텔 청소부로 일하던 전통을 더 이상 따르지 않으려는 추세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의하면, 이제 이들은 오랫동안 꼭 거쳐야 하는 관문으로 여겼던 ‘힘들고, 임금도 낮고, 따분한 여름 일터’에서 일하는 것보다 진로에 도움이 될 서머스쿨이나 전문직 인턴 과정을 이수하기를 원한다.

정치적 분위기도 빈곤과 가난한 사람들에 관해 침묵을 지키자는 ‘암묵적 합의’라고 맺은 듯하다. 민주당으로서는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는 ‘유례없는 호황’이라는 시기에 구태여 문제점을 찾아 부각시키고 싶지 않을 것이고, 공화당의 경우는 ‘지금껏 우리에게 익숙했던 복지’를 종식시키고 나서는 아예 빈민들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어졌다.

<나>

가난한 사람이라고 나쁜 집에 살 이유는 없다. ‘사회주택’이 살고 싶지 않은 곳이라는 낙인이 없기에 중산층 중에서도 사회주택에 대한 거주 수요가 있다. 대부분의 주택들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주택이 사회주택인지 외관만 봐서는 알 수 없다. 자연스럽게 소셜 믹스(social mix)가 가능했던 배경으로 꼽힌다. 이는 대부분 네덜란드 사회주택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는 점이기도 하다. 인터뷰를 했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피어 스메스 교수는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외부에서 보기에 디자인이 좋다”며 “사회주택과 일반주택 구별이 어려울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벨기에,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사회주택을 알아챌 수 있어 ‘ 좋지 않은 집에 사는구나’라는 낙인효과가 심하지만, 네덜란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선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소셜 믹스는 한국에서는 분양과 임대를 함께 조성해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주민들이 어울려 사는 것을 뜻한다.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보다 더 넓은 개념으로 종교, 연령, 인종적인 소셜 믹스를 모두 포괄하는 듯했다. 네덜란드는 주택을 공급하는 기관과 민간 차원에서 이에 대한 자발적인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었다. 주

택공급 과정에서 소셜 믹스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이들 스스로도 “다양성에 대한 역사가 있었다”면서 한국 사회와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네덜란드 사회주택협회의 한 관계자는 “암스테르담에도 부유층이 사는 동네와 저소득층이 많은 동네가 있지만 극단적으로 가난한 동네는 없다”며 “암스테르담의 특징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주민들은 다양한 소득 수준의 계층들이 섞이기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낮은 소득의 사회주택 거주자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계속 거주를 하거나 혹은 해당 주택을 민간시장에 파는 과정에서 다양한 계층들이 섞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회주택의 매매 과정에서도 이들은 “재정보다는 소셜 믹스 차원”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처럼 소셜 믹스는 편견 없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고 이해하는 정책으로 가치가 있다. 갈수록 나와 다른 사람들과의 연결과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주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왜 소셜 믹스를 시도하는가’를 알 수 있다.

<다>

미국인의 삶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문제는 두 가지 악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나는 재정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시민의식 문제다. 우선 공공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금으로 공공 서비스를 지원하길 꺼려하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곳에 학교, 공원, 운동장, 시민회관 같은 공공시설이 들어서지 않게 된다. 한때 사람들이 모이고 시민의 미덕을 가르치는 비공식 학교 구실을 했던 공공시설이 확연히 줄어든다. 공적 영역이 공동화(空洞化)되면 민주시민 의식의 토대가 되는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가 어려워진다. 그리하여 불평등은 공리나 합의에 미치는 영향과는 별개로 시민의 미덕을 좀먹을 수 있다. 시장에 매혹된 보수주의자들과 재분배에 주목하는 진보주의자들은 이러한 손실을 간과한다.

공적 영역이 잠식되는 것이 문제라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정치가 공동선을 추구한다면 시민적 삶의 기초를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재분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똑같이 공공기관과 공공 서비스를 이용할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모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공립학교, 상류층 통근자를 끌어들이 대중교통 체계, 그리고 보건소, 운동장, 공원, 레크레이션 센터, 도서관, 박물관처럼, 사람들을 배타적인 공동체로부터 끌어내 민주시민 의식을 공유하는 장소로 모이게 하는 시설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강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이 사회 전체에 관심을 갖고 공동선에 헌신하는 태도를 키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좋은 삶에 대한 판단을 순전히 개인적인 영역으로 남겨두지 말고 시민의 미덕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보다도 더 활발하게 정치·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적 생활이 필요하다. 참여하는 정치는 회피하는 정치보다 시민에게 더 많은 이상을 불어넣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의로운 사회 건설에 더 유망한 기반을 제공한다.

1. <가>의 상황을 <다>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의미를 논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빈곤과 양극화 문제를 ‘공간’을 통해 생각해보며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고찰하도록 하였다. 부자와 빈민이 서로 단절되고 공간을 통해 구별되는 것은 공동체의 위기라는 점에서 ‘소셜 믹스’ 사례인 사회주택을 통해 빈부와 상관없이 상호교류가 가능한 공적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였다. 계층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의 장을 만들고 연대의식에 기반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시민의 덕목이 중요함을 인식하도록 고안되었다.

본 문제를 통해 각 제시문의 핵심 요지를 파악하는 능력과 <가>의 문제상황을 <다>에서 주장하는 바를 바탕으로 <나>의 사례에 적용하여 그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과정에서 분석력과 논증력, 문제해결능력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였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성취기준 1 (4) 사회 윤리와 직업 윤리 (가) 사회의 도덕성과 사회 윤리 윤리를 바라보는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가진다. 이를 위해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분석하고, 사회의 도덕성 제고를 위해서 사회 윤리적 관점이 필요함을 인식한다. ①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차이(39쪽) ② 사회 구조 및 제도와 윤리 ③ 개인선과 공동선의 조화 고생41. 개인 윤리적 관점과 사회 윤리적 관점의 차이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조사·분석함으로써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간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공동선의 조화를 추구하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관련 제시문 <가> <다>
	성취기준 2 (나) 사회 정의와 정의로운 사회 사회 제도가 추구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으로서 사회 정의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탐구한다. ① 사회 정의의 의미(40쪽) ② 분배적 정의와 공정한 분배 ③ 법적 정의와 공정한 처벌 ④ 사형 제도의 윤리적 쟁점 고생42. 사회 정의의 의미와 종류, 사회 정의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관점들을 이해하고, 사회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을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관련 제시문 <다>
	과목명: 윤리와 사상	
	성취기준 1 (4) 사회 사상 (다) 공동체와 연대 개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이를 위해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① 공동체의 정체성 및 소속감 형성 기능(구성적 공동체) 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적 자아의 갈등(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논의 포함) ③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56쪽) 고윤42.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존재와 역할 및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관련 제시문 <다>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성취기준 1 (2) 공정성과 삶의 질 (다) 삶의 질과 복지 개인과 공동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조건들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노력을 파악한다. ① 인간다운 삶을 위해 필요한 삶의 조건(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요인 등 고려)을 찾아보고, 이를 갖추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방법에 대하여 토의한다. ②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부와 사회 봉사가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관련 제시문 <나>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기준 1	그 실천 방안을 제시한다. ③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예: 지역차 해소, 환경 고려, 복지 제도, 경제 성장 등)을 파악하고 평가한다.(61쪽) 사회1212.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24.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 사회1228.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삶의 조건을 살펴보고, 이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사회1212.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인간관계와 사회 공동체를 이해하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사회적 관계에서 인간 존중의 필요성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24.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 사회1228. 인간다운 삶을 위해 요구되는 다양한 삶의 조건을 살펴보고, 이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하는 이유와 지원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과목명: 사회·문화		관련
성취기준 1	(4) 사회 계층과 불평등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 계층과 불평등 현상을 살펴본다. 그리고 사회 불평등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적 시각을 이해하고, 사회 불평등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가)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 불평등 현상을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으로 비교.분석한다.(153쪽) (나)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의 의미와 특징을 이해한다.(153쪽) (다) 빈곤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153쪽) (라) 성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성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과 해결방안을 탐색한다. 사회1241.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사회1242.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의 의미와 유형을 이해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43. 빈곤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가> <다>
	사회1241. 사회 불평등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능론과 갈등론의 관점에서 사회 불평등 현상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사회1242. 사회 계층 구조와 사회 이동의 의미와 유형을 이해하고, 각각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43. 빈곤의 유형과 특징을 이해하고,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노동의 배신	바버라 에런라이크	부키	2017	290-292	제시문 <가>	○
	[남의집살이 in 유럽]	원정희	비즈니스 위치	2019. 8. 8.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19/07/08/0011	제시문 <나>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와이즈 베리	2015	384-390	제시문 <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고등학교 사회·문화	신형민 외	비상교육	2015	162-166	제시문 <가> <다>	○
	고등학교 사회·문화	박선웅 외	금성출판사	2015	150-153	제시문 <가> <다>	○
	고등학교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5	76-81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사회	박윤진 외	지학사	2015	74-77	제시문 <가>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박병기 외	지학사	2015	251-256	제시문 <가> <나> <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박효중 외	교학사	2015	180-184	제시문 <가> <나> <다>	○
	고등학교 윤리와 사상	김선옥 외	금성출판사	2015	218-223	제시문 <가> <나> <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184-188	제시문 <가> <나> <다>	○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5	152-155	제시문 <가> <나> <다>	○

5. 문항 해설

■ 제시문 요약

제시문 <가> : 바버라 에런라이크, 『노동의 배신』, 부키, 2017, 290-292쪽

<가>는 미국 사회에서 빈곤층이 가시화되지 않으면서 중산층과 부자들은 빈곤 문제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 현실과,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계층간에 물리적 공간이 분리되어 교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빈곤 해결을 위한 복지문제에 정치권의 무관심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나> : 원정희, “남의집살이 in 유럽”, <비즈니스 워치>, 2019.08.08.

<나>는 일반 주택과 외관상 별 차이가 없는 네덜란드 사회주택은 소득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 연령, 인종들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소셜 믹스의 사례다. 가난한 사람들이 낙인효과 없이 동일한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다양한 계층이 서로 교류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제시문 <다>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와이즈베리, 2015, 384-390쪽.

<다>는 불평등이 심화하게 되면 공동체 의식이 붕괴될 수 있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에 공공 시설의 재건을 통해 계층간 분리된 생활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공공 시설과 공적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부유한 계층이 빈곤층이 함께 만나는 장을 통해 서로 교류하면서 공동체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미덕을 키워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논제의 구성

※ <가>의 상황을 <다>를 통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의 의미를 논하시오.
(1,000±100자)

인문계열 2회차 <문항1>에서 제시된 논제는 두 개의 물음으로 구성되었다.

첫째 <가>의 문제 상황을 <다>의 주장을 통해 검토하시오.

둘째 위의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나>의 사례가 갖는 의미를 논하시오.

본 논술 문항의 주제는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빈부 간의 공간분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논제는 제시문 <다>를 통해 <가>의 문제 상황을 살펴보고 <나>의 예시가 주는 함의를 해석하는 데 있다. 즉 <가>의 사회 양극화에서 기인된 공간 분리 문제를 <다>에서 언급한 공동체 붕괴에 대한 우려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공간을 복원함으로써 공동선을 위한 시민적 미덕의 가치를 검토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나>의 네덜란드 ‘사회주택’ 사례를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이 서로 어울려 살아가는 공간을 구현한 소셜 믹스의 사회정치적 의미를 논하도록 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도덕과와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계층과 불평등, 공동체와 연대, 사회정의 및 복지 등의 주제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논제로서, 각 제시문 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살펴보면서 체계적으로 서술하도록 하였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 답안의 기본 요소 - 내용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가 -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 논제에 대한 답안의 내용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시문 <가>에 대한 분석】 • 제시문 <가>의 문제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① <가>에서 드러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핵심을 요약한다. : <가>는 미국 사회가 양극화로 인해 계층 간의 공간분리가 일어나고 상호교류가 단절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에, 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함. - 과거와는 달리 빈곤 관련 보도가 사라지고 빈민들도 자신의 가난을 감출 수 있다는 점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부자들은 빈민 문제를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 - 부자들은 자신들만의 공간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는 방향으로 삶의 양식도 변화되면서 빈민들과 점점 분리되고 있다. - 진보나 보수와 관계없이 정치권은 빈민 문제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 • 예시답안의 첫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양극화, 불평등, 빈곤층, 부자, 공간, 빈곤의 발견, 공공장소, 공유, 정치적 분위기, 복지 【제시문 <다>의 핵심 주장 파악】 • 제시문 <다>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② <다>의 주장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사회적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동체 의식의 약화가 우려되기에 공적 영역의 재건과 참여정치가 중요하다는 주장을 찾아내야 함. - 시민들의 삶의 기반이 되는 공적 공간이 쇠퇴하면서 사회적 연대와 시민의식이 취약해질 수 있다. - 소득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다양한 계층이 서로 만나 어우러질 수 있는 다양한 공적 공간을 재건하고 질 높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적 덕성을 키워가야 한다. ③ <다>의 관점에서 <가>를 연결하여 어떤 점이 문제 상황인지 정리한다. : <다>에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공동체 붕괴를 우려하는 관점이 <가>에서 빈민들이 비가시화되는 상황과 계층 간 공간 분리라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함. - 공공시설과 공적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적 영역이 위축되면서 <가>에서 거론한 것처럼, 부자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일상의 삶에서 빈민들을 자연스레 만날 수 없게 됨으로써 공동체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 예시답안의 두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불평등 심화, 시민의식, 공공서비스, 시민의 미덕, 민주 시민의식, 연대, 공동체의식, 공적 영역, 정의로운 사회, 좋은 삶, 참여정치, 공동선 【제시문 <나>의 의미 서술】 • 앞 부분의 주장과 연결하는 논의 과정에서 논리성과 설득력을 평가할 것 ④ <나>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나>에서 언급한 네덜란드의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사람들 이 혼합되어 살아가는 삶의 공간으로써 역사성이 있음을 지적해야 함. - 사회주택은 소셜 믹스에 바탕을 두어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는 낙인 없이 누구나 살 수 있는 공간을 통해 계층 간 사회적 통합을 도모해 간 구체적인 사례다. ⑤ <나>의 사례가 갖는 의미를 위에서 언급한 내용들과 연결하여 논한다. : <나>에서 소셜 믹스가 가능했던 성공 요인으로 사회주택 관련 기관과 시민을 포함한 모든 주체들이 다양한 삶을 존중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온 역사에 기반한다는 점을 <다>의 시민의식과 연결해서 서술해야 함. - <가>의 사회적 불평등 문제로 인해 빈부 간 분리된 현실 상황이 <다>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적 공간의 복원과 민주적인 시민적 미덕을 함양함으로써, <나>의 소셜 믹스 가 구현된 구체적인 사회주택 예시를 통해 계층구분 없이 함께 살아가는 공	

동체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의미를 지적한다. • 예시답안의 세 번째 단락 참조 • Key Word : 가난한 사람, 나쁜 집, 사회주택, 소셜 믹스, 낙인, 다양성,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다양한 계층, 교류, 부유층, 이해, 점점	
①, ②, ③, ④, ⑤를 정확하게 기술하고 답안 서술이 체계적이며 완성도가 높은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문장 표현에 약간의 미흡함이 있는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충족하였으나, 논리적 구성이 다소 매끄럽지 못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기술하였으나 ⑤의 내용을 충실하게 답하지 못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기술하였으나 ④, ⑤를 미흡하게 답한 경우	5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기술하였어도 환문하지 않고 제시문 표현을 단순히 베껴 쓴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에서 한 두 개만 충족하여 답안 내용이 미흡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대부분 충족시키지 못하여 답안 완성도에 결함이 많은 경우	8등급
문항의 요구사항과 무관하거나 답안 분량이 현저히 적은 경우	9등급

- ※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9등급 처리함.

7. 예시 답안

<가>는 미국 사회의 양극화로 계층 간의 공간분리와 상호교류가 단절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빈곤 관련 기사가 보도에서 사라지고 빈민들도 자신의 가난을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부자들은 빈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부자들이 자신들만의 공간을 구축하고 삶의 방식도 변화되면서 빈민들과 분리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빈민들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없어지고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 이처럼 <가>는 공간을 통해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면서 사회통합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문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해 공간이 분리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쇠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공공시설과 공적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면서 공적 영역이 위축되고, 서로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회적 연대의식이 무너질 수 있다. 즉 <가>에서 부자들이 자신들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빈민들과 일상의 삶에서 자연스레 만날 수 없게 됨으로써 <다>가 우려하는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공적 공간이 쇠퇴하면 시민의식도 약화될 수 있기에, 단지 소득 재분배 정책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이 서로 만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시설을 재건함으로써 공동선에 관심을 갖고 사회문제에 참여하고 헌신하는 미덕을 키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나>의 사회주택은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구체적인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소셜 믹스에 바탕을 둔 사회주택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집이라는 낙인 없이 누구나 살만한 주택이라는 점에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소셜 믹스가 가능했던 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온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의 계급 간의 공간분리로 드러난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다>에서 제시한 공동체적 가치에 입각하여 건설된 <나>의 사회주택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시민들이 공존하는 사례를 보여주었다. 사회적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공동선을 추구하는 시민의식과 소셜 믹스를 통해 계층 간 교류와 사회통합을 구현한 사례로서 <나>의 예시는 의미가 있다. [1,090자]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인문계열(2회차) / 문항(2)	
출제 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사회,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핵심개념 및 용어	고통, 공감, 소통
예상 소요 시간	60분 / 전체 60분	

2. 문항 및 자료

<가>

인간에게 특정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바로 결함이라는 것. 그러므로 인간이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과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은 정확히 같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슬픔이다. 이 역설을 인정할 때 나는 불편해지고 불우해진다. 그러나 인정은 거기서 멈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심장이다. 심장은 언제나 제 주인만을 위해 뛰고, 계속 뛰기 위해서만 뛴다. 타인의 몸속에서 뛴 수 없고 타인의 슬픔 때문에 멈추지도 않는다. 타인의 슬픔에 대해서라면 인간은 자신이 자신에게 한계다. 그러나 이 한계를 인정하되 긍정하지는 못하겠다.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슬퍼할 줄 아는 생명이기도 하니까. 한계를 슬퍼하면서, 그 슬픔의 힘으로, 타인의 슬픔을 향해 가려고 노력하니까. 그럴 때 인간은 심장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슬픔을 공부하는 심장이다. 아마도 나는 네가 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시도해도 실패할 그 일을 계속 시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나. 이기적이기도 싫고 그렇다고 위선적이기도 싫지만, 자주 둘 다가 되고 마는 심장의 비참. 이 비참에 진저리 치면서 나는 오늘도 당신의 슬픔을 공부한다. 그래서 슬픔에 대한 공부는, 슬픈 공부다.

<나>

자기 고통의 ‘지금 당장’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다. 그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자신이 고통에 예민해져 있고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절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선아는 처음 사람들과 함께 걸었을 때 자기 고통을 그들에게 말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고통의 당사자이니 같이 걷는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자기 한탄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다. 그런데 선아가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자기의 이야기 사이사이에 그들의 이야기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고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혼한 말이지만 자기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각자의 고통이 있었다. 종류와 강도, 그리고 대처법은 다르지만 말이다. 다른 사람의 고통이 보이고 그 고통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아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 고통을 겪는 이들이 한결같이 동시에 겪는 것이 바로 고통이 야기하는 또 다른 고통인 외로움이라는 것을 말이다.

선아가 집단 상담에서부터 들판을 걷는 데 이르기까지 만난 사람들의 고통은 모두 다 이 외로움에 닿아 있었다. 선아는 고통의 절대성에 몸부림칠 때 자기만 괴롭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못할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바깥을 발견하고 그 바깥의 소리를 들으며 선아는 깨닫는다. 고통을 겪는 자는 모두가 다 외로움을 느끼고 그 외로움에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말이다. “나만 외로운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픈 사람들은 다 외롭더라고요. 외로워서 힘들어하더라고요.”

고통의 절대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선아가 발견한 것은 의외의 것이다. 고통은 절대적이기에 소통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절대성은 보편적이다. 그렇기에 고통은 사람을 나‘만’의 세계로 밀어 넣는다. 그러나 그 절대성이 나‘만’을 나‘만’에게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렇다는 것을 알게 한다. 내가 외로운 만큼 너도 외롭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사람은 서로에 대한 연민을 느낄 수 있다. 고통 자체는 절대적이어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지만, 바로 그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의 것’임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그것은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게 된다. 고통의 절대성 자체가 공통의 것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고통에 대해 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고통의 절대성이 만드는 외로움에 대해, 그 외로움을 마주 대하고 넘어서려 했던 자신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외로움이 세계를 파괴하고 사람을 고립시켰지만, 바로 그 외로움이 보편적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외로움은 통하게 된다. 지금 몸부림치는 다른 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 것이다.

<다>

차별 경험과 건강에 대해 연구하는 하버드보건대학원의 낸시 크리거 교수는 설문이나 인터뷰를 통해 차별과 같이 예민한 경험을 측정할 때는 차별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을 차별이라고 인지하는 것, 그 인지한 차별을 보고하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슷한 형태의 차별을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차별로 인지하지 못하고, 또 차별을 인지한다고 해서 모두가 그것을 연구자에게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인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 연구는 미국 사회에서 약자인 흑인, 여성, 아시아인들이 차별을 경험했을 때, 그 경험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별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불편함이 덜하기 때문이라고 연구는 설명합니다.

구직 과정의 차별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한 여성 노동자와 학교 폭력에 대해 ‘아무 느낌 없다’라고 답한 남학생은 모두 자신이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거나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차별을 겪고도 자신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말한 여성 노동자들은 차별을 경험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아팠습니다. 학교 폭력을 겪은 후에 아무렇지도 않다고 이야기했던 다문화가정 남학생들 또한 학교 폭력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말할 수 있었던 학생들보다 더 많이 아팠습니다.

사회적 폭력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 상처를 이해하는 일은 아프면서 동시에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은 스스로 말하지 못하는,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그 상처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몸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비늘에 바다가 스미는 것처럼 인간의 몸에는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의 시간이 새겨집니다.

2. <가>의 ‘슬픈 공부’의 가치를 <나>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시오. (1,000±100자)

3. 출제 의도

본 문항은 고통의 공감과 소통 가능성에 대해 성찰하고 답할 수 있는 문제로 고안되었다. 고통의 종류와 원인은 실로 다종다양하다. 질병·장애 등 육체적 요인에 의한 고통, 차별·소외·학교폭력·따돌림 등 사회적 요인에 의한 고통, 사랑하는 이의 부재로 인한 고통, 뚜렷한 요인이 없음에도 엄습하는 고통 등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겪는 고통의 양상은 유형화하기 어려울 만큼 다변화되었고 그만큼 고통으로 신음하는 이들도 증가했다. 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야말로 고통을 둘러싼 더 큰 문제이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고통에 대한 공감과 소통’이다.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통의 당사자들이 자신의 아픔에 대해 스스로 말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들이 말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고통으로 인한 상처를 안고 있는 이들이 자신의 아픔을 밖으로 말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며, 자기중심주의를 내면화해 극도로 파편화된 삶을 영위하는 현대인들이 자신과 다른 타자적 존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된 서로 다른

존재들에 대한 다양한 혐오 양상은 타자와의 공감과 소통이 얼마나 힘든 과제인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차이와 경계를 넘어 내가 아닌 존재, 그리고 서로 다른 존재들과 소통해야 할 당위성은 더 커진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 문항은 고통을 매개로 타자 간 공감과 소통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출제되었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근거

적용 교육과정	1.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6] “도덕과 교육과정” 중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2.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7] “사회과 교육과정” 중 [사회] 3.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14호[별책5] “국어과 교육과정” 중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도덕과 교육과정		
	과목명: 생활과 윤리		관련
	성취기준 1	(2)생명·성·가족 윤리 ㉞ 친구·이웃 관계의 윤리 친구와 이웃이 우리의 삶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이해하고,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는 태도를 지닌다. 이를 위해 친구 관계와 이웃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사·분석하고, 친구 사이에 강조되어야 할 덕목과 이웃 사이에 지켜야 할 규범을 탐색하며, 친구나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고 성찰함으로써 갈등 해결 능력을 함양한다. ① 친구 관계와 윤리 문제 (38쪽) ② 이웃 생활과 윤리 문제 (38쪽) ③ 친구나 이웃 간의 갈등 예방 및 해결 방안 (38쪽) 고생25. 친구나 이웃 간의 갈등을 예방·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탐구와 성찰을 통해 친구와 이웃의 소중함과 친구와 이웃 사이에서 강조되어야 할 덕목을 이해하고,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며, 친구와 우정을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끼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나> 제시문 <다>
	성취기준 2	(4)사회 윤리와 직업 윤리 ㉞ 인권 존중과 공정한 사회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인권 존중, 차별 금지, 부패 방지 등이 중요함을 사회 정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과 관용 및 정의를 지향하는 태도를 기른다. 이를 위해 인권 침해, 차별, 폭력,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 윤리적 방안과 사회 윤리적 방안에 대하여 토론한다. ① 인권 존중의 윤리적 의미 (40쪽) ② 차별과 역차별, 우대 정책의 윤리적 문제 (40쪽) 고생43. 인권, 역차별, 사회 부패, 시민불복종 등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사회 정의와 관련된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이해하고, 공감·소통·갈등 해결 능력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는 태도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다>
	과목명: 윤리와 사상		관련
	성취기준 1	(4)사회사상 ㉞ 공동체와 연대 개인은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존재함을 이해하고 그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가진다. 이를 위해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한다. ②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개인적 자아의 갈등(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인간관에 대한 논의 포함) (56쪽) ③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56쪽) 고윤42.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존재와 역할 및 의무를 이해하고, 공동선과 개인적 선의 조화 방안에 대해 토론할 수 있으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려는 자세를 지닐 수 있다.	제시문 <가> 제시문 <나>
2. 사회과 교육과정			

과목명: 사회		관련
성취기준 1	(2) 공정성과 삶의 질 (가) 개인과 공동체 개인과 공동체 간의 관계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과 공동체 간의 조화로 온 발전 방안을 탐색한다. 또한 구체적 사례의 분석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과 소외를 없애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평가한다. ④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예: 장애인 고용제, 공정 거래 제도, 국토 균형 개발 등)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자신의 입장을 명료화한다. (58-59쪽) 사회1224.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명료하게 제시할 수 있다. (나) 다양성과 관용 다양성이 존재하는 현대 사회에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고,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찾아 이를 해결하는 방안들을 모색한다. 또한 다양성이나 다문화란 단순히 인종이나 민족 문화의 차이에 한정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차이와 갈등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①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이를 간과하여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예: 문화, 종교 갈등, 학교 폭력 등)를 파악한다. (60쪽) ②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사례를 통해 이해하고, 이를 다양성 인정이 필요한 상황(지역, 인종, 계층 등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에 적용한다. (60쪽) ③ 다문화 사회(지역, 인종과 민족, 성, 계층, 장애 등 고려)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60쪽) 사회1225. 개성과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그것이 존중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26.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는 문화 상대주의 관점을 사례와 함께 이해하고, 다양한 문화 갈등 상황에 이 관점을 적용하여 다양성 인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1227. 다문화 사회에서 차이를 인정하는 관용과 문화적 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다문화 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갈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제시문 <나> 제시문 <다>

3. 국어과 교육과정

과목명: 문학		관련
성취기준 1	문학과 삶 (13) 문학을 통하여 자아를 성찰하고 타자를 이해하며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작품 속의 세계와 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한다.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자신의 삶과 생각을 통해 이해하고 평가하면서 자신을 성찰한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독자는 풍부한 감수성, 예리한 통찰력, 따뜻한 포용력, 바람직한 가치관 등을 두루 갖춘 내면세계를 형성하게 된다. 문학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삶의 다양성을 깊이 성찰할 수 있다. 자아의 내면세계가 보다 넓고 깊어짐으로써 타자의 존재를 수용하고 이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개성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한다. (139쪽) 310513-1. 작품 속 인물들의 삶과 생각을 통해 자신의 삶과 생각을 평가하고 성찰할 수 있다. (14)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 인간은 다양한 층위의 공동체의 구성원이며, 다른 구성원들과 연대되어 있다.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환경 문제, 다문화의 문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문학 활동을 통해 현재 우리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와 그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타인과 소통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한다. (140쪽) 310514-1.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의식을 담아낸 문학 작품을 읽고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 상황과 문제의식을 파악할 수 있다. 310514-2.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동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 문학 작품을 창작할 수 있다. 310515-1. 문학 작품을 읽고, 자아와 세계의 관계 속에서 파악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의 삶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310515-2. 한국 문화의 가치가 담긴 작품들을 읽고, 상생과 공존의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할 수 있다.	제시문 <가> 제시문 <나> 제시문 <다>

나) 자료 출처

교과서 외						
자료명(도서명)	작성자(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신형철	한겨레출판	2018	27-28	제시문<가>	×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엄기호	나무연필	2018	124-126, 259-260	제시문<나>	○
아픔이 길이 되려면	김승섭	동아시아	2017	21-22	제시문<다>	×

관련 교과서 근거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관련 자료	재구성 여부
생활과 윤리	정창우 외	미래엔	2014	94-95	제시문 <나>,<다>	○
생활과 윤리	변순용 외	천재교육	2016	164-165	제시문<다>	○
윤리와 사상	박찬구 외	천재교육	2016	208-209	제시문 <가>,<나>	○
사회	육근록 외	비상교육	2014	55-57	제시문 <나>,<다>	○
문학	박종호 외	창비	2014	286-287	제시문 <가>,<나>,<다>	○

5. 문항 해설

■제시문 요약

제시문<가>: 신형철,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한겨레출판, 2018, 27-28쪽

<가>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 극복에 대한 의지를 밝힌 글이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다. 인간은 아무리 애쓴다 해도 결코 타인이 될 수 없지만 그 한계를 넘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자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따라서 타인의 슬픔에 대한 공부는 나와 타자 간의 넘을 수 없는 경계로 인해 ‘슬픈 공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지향하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에 마냥 슬프지만은 않은 공부다. 그것은 불가능성을 넘어 공감에 대한 희망과 의지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시문<나>: 엄기호,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나무연필, 2018, 124-126, 259-260쪽

<나>는 고통의 소통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글이다. 어떤 고통을 안고 있는 선아는 자신만이 괴롭고 아무도 자신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집단상담 등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다 각자 나름의 고유한 고통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이 고통을 겪는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선아가 깨닫게 된 것이 있다. 고통 자체는 각자에게 고유하고 절대적인 것이어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지만, 그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의 것’임을 발견하는 순간 고통의 교감과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를 깨닫게 되었을 때 고통을 가진 이들은 이제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다. 고통이 야기한 외로움이라는 보편적 고통을 통해 자신만의 절대적인 고통을 다른 이들과 나눌 수 있게 된다. 고통의 보편적 절대성이 되레 고통을 교감하고 소통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말하고 있다.

제시문<다>: 김승섭, 『아픔이 길이 되려면』, 동아시아, 2017, 21-22쪽

<다>는 사회적 폭력을 경험한 당사자가 그 상처에 대해 말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 상처가 각인된 몸에 관한 글이다. 차별, 학교폭력 등을 경험한 이들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쉽게 말하지 못한다. 상처를 이해하는 것이 아프면서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몸은 정직하므로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처까지도 모두 기억하고 있다. 따라서 몸은 상처 그

자체이면서, 상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이기도 하다.

■논제의 구성

본 논술문항의 주제는 ‘고통의 공감과 소통 가능성’이다. 제시문<가>, <나>, <다>는 슬픔, 고통, 상처 등 마음과 몸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과 타자 간의 공감과 소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시된 논제는 다음과 같다.

<가>의 ‘슬픈 공부’의 가치를 <나>를 통해 설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보시오. (1,000±100자)

논제는 제시문<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슬픈 공부’의 가치를 제시문<나>의 관점에서 연결해 풀어 설명할 수 있는지, 이를 통해 <다>의 요지를 파악해 추출한 문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근거, 즉 조건을 제시할지 있는지를 묻고 있다.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가>의 슬픔, <나>의 고통, <다>의 상처가 모두 다양한 이유로 겪게 되는 인간의 고통과 그 소통을 문제시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연결해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가>는 비당사자의 관점에서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기, <나>는 당사자가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기, <다>는 당사자가 고통을 말하는 것의 어려움이라는 주제를 각각 다루고 있음을 파악해 논제에 종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논제에 대한 답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단계를 거쳐야 한다.

- ① <가>의 요지를 통해 ‘슬픈 공부’의 의미를 파악한다.
- ② <나>의 요지를 파악해 <가>와의 연결점을 추출한다.
- ③ <나>를 통해 <가>의 ‘슬픈 공부’의 가치를 설명한다.
- ④ <다>의 요지를 통해 무엇이 문제 상황인지 파악한다.
- ⑤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 가능한 근거를 <가><나>를 통해 제시한다.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배점
	■답안의 구성요소 -답안이 질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답안의 구성이 논리적인가 -언어 사용이 명확하고 자신의 언어로 잘 표현하고 있는가 【제시문 <가><나>의 요지를 파악해 두 지문의 연결점을 추출】 • 두 지문을 하나의 관점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능력 측정 ①제시문 <가>의 요지를 통해 ‘슬픈 공부’의 의미를 파악한다. -인간은 자기중심적 존재이지만 그 한계를 넘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자 노력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슬픈 공부’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 극복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담은 말이다. • 예시답안 첫 번째 단락의 전반부 참조 ②제시문 <나>의 요지를 파악해 <가>와의 연결점을 추출한다. -선아의 사례는 고통의 보편적 절대성이 고통을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의 고통은 <가>의 슬픔과 상통하므로, 고통을 소통한 <나>의 사례는 타인의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가>에게 유의미한 예시가 될 수 있다. • Key Word : 제시문 <가> 슬픔, 타인, 한계, 심장, 공부	

	제시문 <나> 고통, 고통의 절대성, 외로움, 보편적, 소통, 이야기 【제시문 <나>를 통해 <가>의 ‘슬픈 공부’의 가치 설명】 - 한 지문을 통해 다른 지문의 함의를 보완 설명하는 독해력 측정 ③<나>의 요지를 <가>의 요지와 연결해 ‘슬픈 공부’의 가치를 설명한다. – 고통의 보편적 절대성이 오히려 고통을 교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나>의 역설은 타자와의 넘을 수 없는 벽을 넘어서고자 끊임없이 지향하는 인간의 의지를 반영한 <가>의 ‘슬픈 공부’의 진정한 가치를 증명한다. ‘역설’ 또는 그에 준하는 단어(패러독스 등)를 사용해 답안을 작성한 경우는 가산점 - 예시답안 첫 번째 단락의 후반부 참조 - Key Word : 슬픈 공부, 역설, 가치, 교감, 소통, 보편적 절대성 【제시문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 가능한 근거 제시】 - 앞의 두 지문과 연결해 문제 극복의 단서를 찾아낼 수 있는 논리력 측정 ④제시문 <다>의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 <다>의 문제 상황은 차별 당사자가 자신의 상처를 말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 상처를 인지하는 것은 아프고 혼란스럽기에 당사자의 ‘자기 말하기’는 어렵다. - 말하는 것과 인지하는 것 모두의 어려움이 ‘문제 상황’이라고 답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상처를 인지하는 것의 어려움만 답한 경우는 감점 대상. ‘몸’은 상처를 기억해 차별 경험에 대해 말하는 토대가 되므로, 상처받은 몸 자체가 문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가><나>를 통해 <다>의 문제 상황이 극복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 몸은 당사자가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처를 정직하게 기억한다. 따라서 ‘몸’은 상처의 증거로서, 상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다. – 들어주는 이가 없으면 말할 수 없으므로, 한계를 넘어 타인의 슬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가>의 의지는 <다>의 당사자가 상처를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고통의 고유성과 절대성을 넘어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 <나>의 사례도 <다>의 ‘자기 말하기’를 가능케 하는 또 하나의 근거다. - 당사자의 ‘아픔’이라는 점에서, <다>의 상처가 <가>의 슬픔, <나>의 고통과 같은 맥락에 있음을 명확히 적시한 답안은 가산점 대상 <가><나>만을 통해 근거를 제시한 경우보다 <다>의 ‘몸’을 근거의 하나로 문맥에 담아 제시한 답안은 가산점 대상 - 예시답안 두 번째 단락을 참조 - Key Word : 몸, 상처, 차별, 학교 폭력, 말하기, 인지, 기억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체계적인 논리력과 표현력을 보여준 경우	1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충족하고 논리적으로 구성하였으나, 표현력이 미흡한 경우	2등급
	①, ②, ③, ④, ⑤를 모두 서술하였지만, 논리적 구성이 미흡한 경우	3등급
	①, ②, ③, ④를 서술하였으나 ⑤를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4등급
	①, ②, ③을 서술하였으나 ④, ⑤를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5등급
	①, ②를 서술하였으나 ③, ④, ⑤를 제대로 답하지 못한 경우	6등급
	①, ②, ③, ④, ⑤ 중에서 한두 개만 충족하고 답안의 충실성이 매우 미흡한 경우	7등급
	①, ②, ③, ④, ⑤의 요소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고 글자 수가 800자 미만인 경우	8등급
	문항의 요구 사항에 무관한 답을 썼거나 아래의 <유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9등급
	<유의 사항> - 글자 수 300자 이내의 답안은 9등급 처리함. - 수험생의 개인 정보를 암시한 답안은 9등급 처리함.	

<가>의 ‘슬픈 공부’는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의 어려움과 그 극복에 대한 의지를 함께 담은 말이다. 인간은 아무리 애쓰다 해도 결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될 순 없다. 하지만 그 한계를 넘어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기를 멈추지 않는 존재이기도 하다. 타인의 슬픔에 대한 공부는 1차적으로 나와 타자 간의 넘을 수 없는 벽을 전제하기에 ‘슬픈 공부’이지만, 한편 그 한계를 넘어서고자 끊임없이 지향하는 인간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기에 역설적 가치를 지닌다. 그것은 인간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배울 만한 가장 소중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의 선아의 사례는 ‘슬픈 공부’의 가치를 뒷받침한다. 애당초 아무도 자신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절망에 빠져 있던 그녀가 집단상담 등을 통해 다른 이들도 각자 나름의 고통이 있으며 외로움이라는 또 다른 고통이 고통을 겪는 이들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통 자체는 각자에게 고유하고 절대적이어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지만, 그 교감하고 소통할 수 없다는 것이 공통의 것임을 발견하는 순간 교감과 소통이 가능해진다는 역설은 <가>의 ‘슬픈 공부’의 역설과 상통한다. 고통의 보편적 절대성이 고통을 교감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나>를 통해 <가>의 ‘슬픈 공부’의 진정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의 문제 상황은 차별 당사자가 자신의 상처를 말하는 것의 어려움이다. 우선, 몸은 당사자가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지하지도 못하는 상처를 정직하게 기억하므로 상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이자 가장 명확한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통의 고유성과 절대성을 넘어 자신의 고통에 대해 말할 수 있게 된 <나>의 사례, 타인의 슬픔을 나누고자 하는 <가>의 의지도 차별 당사자가 자신의 상처를 말할 수 있게 되는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들어주는 이가 없다면 말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의 상처는 <가>의 슬픔, <나>의 고통과 동의어가 되며, <다>의 상처를 새긴 몸은 <가>의 심장을 넘어 <나>의 다른 이의 몸부림과 맞닿게 된다. 고통을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다. [1,080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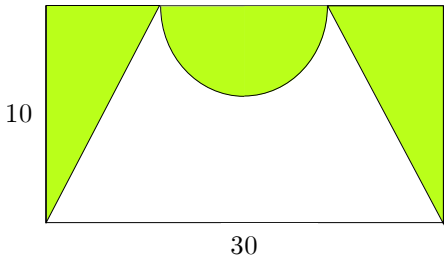
<자연계열문항>

1. 일반정보		
유형	☒ 논술고사 ☐ 면접 및 구술고사	
전형명	2020학년도 수시모집 논술우수자전형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자연계열 / 1-1(a), 1-1(b), 1-2(a), 1-2(b), 1-3(a), 1-3(b)	
출제 범위	수학과 교육과정 과목명	수학I, 수학II, 미적분I, 미적분II, 기하와 벡터
	핵심개념 및 용어	귀류법, 합성함수, 함수의 최대 최소, 미분, 적분, 벡터의 연산
예상 소요 시간	110분 / 전체 120분	

2. 문항 및 제시문

<가>

① 어느 극장의 무대는 관객석에서 보면 폭이 30, 높이가 10인 직사각형 모양이다. <그림 1>과 같이 무대 천장의 한가운데에 반지름의 길이가 r 인 반원 모양의 커튼과 이 반원과 연결된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을 양쪽에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무대를 볼 수 있는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r 의 값을 구해보자. 이 문제는 커튼에 의해 가려진 영역의 넓이를 최소가 되도록 하는 r 의 값을 구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이 영역의 넓이



<그림 3>

$$f(r) = \frac{1}{2}\pi r^2 + \frac{10(30-2r)}{2} \quad (\text{단, } 0 < r <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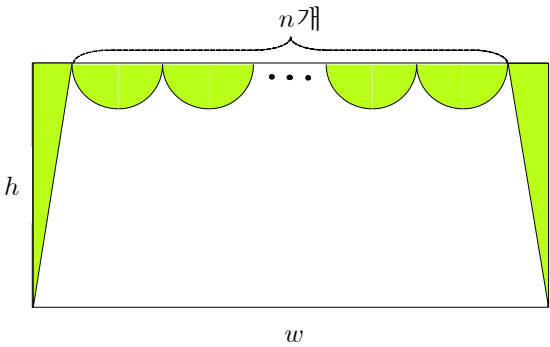
을 최소화하면 된다. $f'(r) = \pi r - 10$ 이므로 $f(r)$ 은 $r = \frac{10}{\pi}$ 일 때 최솟값을 갖는다. 한편 $f(r)$ 에서 무대의 폭 30을 다른 수로 대체하더라도 $f'(r)$ 의 값이 같으므로 $f(r)$ 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r 의 값은 무대의 폭 30과 무관하다.

이제 관객석에서 보면 폭이 w , 높이가 h 인 직사각형 모양의 무대를 생각하자. 무대 천장의 한가운데에 <그림 2>와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r 인 n 개의 반원 모양의 커튼과 이 반원과 연결된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을 양쪽에 설치하려고 한다. 이때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무대를 볼 수 있는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r 의 값을 구해보자. 커튼에 의해 가려진 영역의 넓이

$$f(r) = \frac{n}{2}\pi r^2 + \frac{1}{2}(w-2nr)h$$

$$(\text{단, } 0 < r < h \text{이고 } 0 < r < \frac{w}{2n})$$

를 최소화하면 된다. 이 함수는 $r = \frac{h}{\pi}$ 가 $0 < r < h$, $0 < r < \frac{w}{2n}$ 를 만족시킬 때, 이 값에서 최솟값을 가짐을 보일 수 있다. 이 r 의 값은 무대의 폭 w 와 무관하다.



<그림 4>

<나>

함수 g 를

$$g(x) = \begin{cases} x & (x \geq 0) \\ 0 & (x < 0) \end{cases}$$

으로 정의할 때, 임의의 함수 f 와 임의의 실수 a, b 에 대하여, $a < b$ 이면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g(f(x) - a) + a \leq g(f(x) - b) + b \quad \cdots \cdots \textcircled{2}$$

가 성립한다.

이는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먼저 $f(x) \geq b$ 이면, $f(x) \geq b > a$ 이므로

$$g(f(x) - a) + a = f(x) - a + a = f(x)$$

이고

$$g(f(x) - b) + b = f(x) - b + b = f(x)$$

이다. 따라서 $\textcircled{2}$ 는 성립한다. 이제 $a \leq f(x) < b$ 이면

$$g(f(x) - a) + a = f(x) - a + a = f(x)$$

이고

$$g(f(x) - b) + b = b$$

이다. 따라서 $\textcircled{2}$ 는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f(x) < a$ 이면 $f(x) < a < b$ 이므로

$$g(f(x) - a) + a = a$$

이고

$$g(f(x) - b) + b = b$$

이다. 따라서 $\textcircled{2}$ 는 성립한다.

한편 아래의 명제를 생각하자.

$$\textcircled{3} \quad \left[\begin{array}{l} \text{함수 } f \text{가 모든 실수 } x \text{에 대하여} \\ g(f(x) - 2) + 2 \leq g(f(x) - 1) + 1 \\ \text{을 만족시키는 것은 모든 실수 } x \text{에 대하여 } f(x) \geq 2 \text{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다.} \end{array} \right.$$

명제 $\textcircled{3}$ 은 $\textcircled{2}$ 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함수 f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g(f(x) - 2) + 2 \leq g(f(x) - 1) + 1 \quad \cdots \cdots \textcircled{4}$$

을 만족시킨다고 하자. 결론을 부정하여 어떤 실수 c 에 대하여 $f(c) < 2$ 라고 가정하자. $\textcircled{4}$ 에 의하여

$$g(f(c) - 2) + 2 \leq g(f(c) - 1) + 1$$

이고 $\textcircled{2}$ 에 의하여

$$g(f(c) - 1) + 1 \leq g(f(c) - 2) + 2$$

이므로

$$g(f(c) - 2) + 2 = g(f(c) - 1) + 1$$

이다. 이것은 모순임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geq 2$ 이다. 역으로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geq 2$ 이면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g(f(x) - 2) + 2 \leq g(f(x) - 1) + 1$$

이 성립함도 보일 수 있다.

<다>

좌표평면에서 원 $x^2 + y^2 = 1$ 위에 서로 다른 n 개의 점 $A_1, A_2, \dots, A_n$ 이 있다고 하자. 이 n 개의 점이
등식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cdots + \overrightarrow{OA_n} = \vec{0}$$

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자. 먼저 $n = 2$ 인 경우에는 점 A_1 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이 점 A_2 일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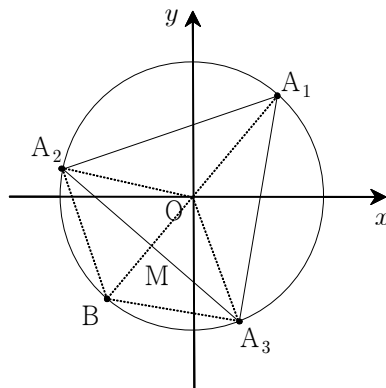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vec{0}$$

가 됨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n = 3$ 인 경우를 생각하자. <그림 3>과 같이 원 $x^2 + y^2 = 1$ 위에 x 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시계 반대방향의 순서대로 서로 다른 세 점 A_1, A_2, A_3 이 있다. 이 세 점이 등식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vec{0}$$

를 만족시키면 이 세 점이 정삼각형의 세 꼭짓점이 됨을 다음과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림 3>과 같이 점 A_1 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B 를 생각하면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B}$ 가 되어야 하므로 사각형 OA_2BA_3 은 평행사변형이다. 그런데 두 변 OA_2 와 OA_3 은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으므로 사각형 OA_2BA_3 은 마름모이다.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수직이등분하므로 선분 A_2A_3 은 선분 OB 를 수직이등분한다. 따라서 두 점 A_2 와 A_3 은 선분 OB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의 교점이다. <그림 3>에서 선분 A_2A_3 의 중점을 점 M 이라 하면 삼각형 OMA_2 와 삼각형 A_1MA_2 가 직각삼각형이므로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하여 선분 A_2M 의 길이는 $\frac{\sqrt{3}}{2}$ 이고 선분 A_1A_2 의 길이는 $\sqrt{3}$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삼각형 $A_1A_2A_3$ 의 다른 두 변의 길이도 $\sqrt{3}$ 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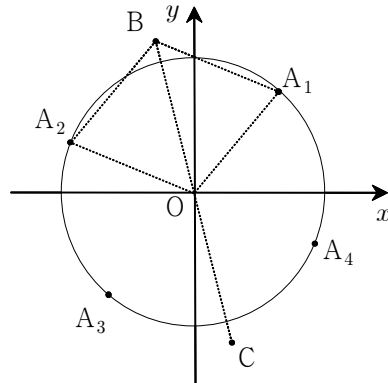


<그림 5>

이제 점의 개수를 하나 더 늘려 $n = 4$ 인 경우를 생각하자. <그림 4>와 같이 원 $x^2 + y^2 = 1$ 위에 x 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시계반대방향의 순서대로 서로 다른 네 점 A_1, A_2, A_3, A_4 가 있다. 이 네 점이 등식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A_4} = \vec{0}$$

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자. 벡터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의 끝점을 점 B 라 하고 점 B 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점 C 라 하면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A_4} = \overrightarrow{OC}$ 가 되어야 한다. 위의 $n = 3$ 인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사각형 OA_3CA_4 는 마름모가 됨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선분 OC 의 길이는 선분 OB 의 길이와 같고, 이는 2보다 작으므로 선분 OC 의 수직이등분선은 원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따라서 두 점 A_3 과 A_4 는 선분 OC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의 두 교점이 된다.



<그림 6>

한편 $n = 5$ 인 경우, 예를 들어 세 점 $A_1(1,0), A_2\left(\frac{\sqrt{2}}{2}, \frac{\sqrt{2}}{2}\right), A_3(0,1)$ 에 대하여 등식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A_4} + \overrightarrow{OA_5} = \vec{0}$$

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점 A_4, A_5 는 원 $x^2 + y^2 = 1$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left(1 + \frac{\sqrt{2}}{2}, 1 + \frac{\sqrt{2}}{2}\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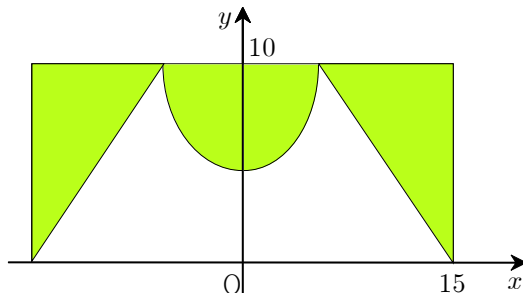
의 크기가 2보다 크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보일 수 있다.

1-1. 제시문 <가>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1(a). <그림 1>에서 직사각형의 밑변을 x 축으로 하고 밑변의 중점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평면을 생각하자. <그림 5>와 같이 반원 모양의 커튼 대신 포물선 $y = x^2 + t$

$$y = x^2 + t \quad (\text{단, } 0 < t < 10)$$

모양의 커튼을 생각하자. 이때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을 제외한 무대를 볼 수 있는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t 의 값을 구



<그림 7>

하시오. 또한 이 t 의 값이 무대의 폭 30과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시오.

1-1(b). <그림 2>와 같이 자연수 n 에 대하여 폭 $w = \frac{n^2 + 11}{\pi}$, 높이 $h = 6$ 인 직사각형 모양의 무대가 있다. 이 무대 천장의 한가운데에 반지름의 길이가 같은 n 개의 반원 모양의 커튼과 이 반원과 연결된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을 양쪽에 설치하려고 한다.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의 넓이를 최소가 되도록 할 때, 무대 양쪽에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이 설치되게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n 을 구하시오.

1-2. 제시문 <나>를 읽고 함수

$$h(x) = \begin{cases} 0 & (x > 0) \\ x & (x \leq 0) \end{cases}$$

에 대한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2(a). 임의의 함수 f 와 임의의 실수 a, b 에 대하여, $a < b$ 이면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h(f(x) - a) + a \leq h(f(x) - b) + b$$

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1-2(b). 함수 f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h(f(x) - 7) + 7 \leq h(f(x) - 5) + 5$$

를 만족시키는 것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leq 5$ 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임을 보이시오.

1-3. 제시문 <다>를 읽고 다음 문제에 답하시오.

1-3(a). 좌표평면에서 원 $x^2 + y^2 = 1$ 위에 x 축의 양의 방향으로부터 시계 반대방향의 순서대로 서로 다른 네 점 A_1, A_2, A_3, A_4 가 있다고 하자. 점 $A_1(1, 0)$ 이고 이 네 점이 등식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A_4} = \vec{0}$$

를 만족시킬 때, 점 A_3 의 좌표를 구하시오.

1-3(b). 좌표평면에서 원 $x^2 + y^2 = 1$ 위에 세 점 $A_1\left(\frac{\sqrt{3}}{2}, \frac{1}{2}\right), A_2\left(\frac{\sqrt{3}}{2}, -\frac{1}{2}\right), A_3(a, b)$ 가 있다고 하자. 등식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A_4} + \overrightarrow{OA_5} = \vec{0}$ 를 만족시키는 서로 다른 두 점 A_4, A_5 가 원 $x^2 + y^2 = 1$ 위에 있을 때, 점 $A_3(a, b)$ 가 나타내는 도형의 길이를 구하시오. (단, 다섯 점 A_1, A_2, A_3, A_4, A_5 가 원 위에 놓이는 순서는 고려하지 않는다.)

3. 출제 의도

명제, 함수, 미분, 적분, 평면벡터 등은 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 사회과학 등 제반 학문에 기본으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도구이다. 본 문항들은 수학I, 수학II, 미적분I, 미적분II, 기하와 벡터 등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 교과들로부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본 문항들을 통해 학생들이 제시문들을 읽고 함수의 최대 최소, 귀류법을 이용한 명제의 증명, 미분, 적분, 벡터의 연산에 대한 풀이과정을 논리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4. 출제 근거

가) 교육과정 및 관련 성취기준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제시문 <가>	교육과정	[미적분Ⅰ] - (다) 다항함수의 미분법 - ㉓ 도함수의 활용 ③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Ⅱ] - (다) 미분법 - ㉒ 도함수의 활용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성취기준· 성취수준	[미적분Ⅰ] - (3) 다항함수의 미분법 - (다) 도함수의 활용 미적1333.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Ⅱ] - (3) 미분법 - (나) 도함수의 활용 미적2322.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제시문 <나>	교육과정	[수학 Ⅱ] - (가) 집합과 명제 - ㉒ 명제 ③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이해한다. 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수학 Ⅱ] - (나) 함수 - ㉑ 함수 ①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②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 성취수준	[수학 Ⅱ] - (1) 집합과 명제 - (나) 명제 수학2121.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를 이해한다. 수학2122. 명제의 역과 대우를 이해한다. 수학2123.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이해한다. 수학2125.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수학 Ⅱ] - (2) 함수 - (가) 함수 수학2211.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수학2212.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제시문 <다>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 - (나) 평면벡터 - ㉑ 벡터의 연산 ②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수 있다.
	성취기준· 성취수준	[기하와 벡터] - (2) 평면벡터 - (가) 벡터의 연산 기벡1211/1212. 벡터의 뜻을 알고,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수 있다.
문제 <1-1>	교육과정	[수학Ⅰ] - (나) 방정식과 부등식 - ㉔ 여러 가지 부등식 ② 이차함수와 이차부등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차부등식과 연립이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수학Ⅲ] - (나) 함수 - ㉑ 함수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미적분Ⅰ] - (다) 다항함수의 미분법 - ㉓ 도함수의 활용 ③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Ⅱ] - (다) 미분법 - ㉒ 도함수의 활용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미적분Ⅱ] - (라) 적분법 - ㉒ 정적분의 활용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 성취수준	[수학Ⅰ] - (2) 방정식과 부등식 - (라) 여러 가지 부등식 수학1242-1. 이차함수와 이차 부등식의 관계를 이해하고, 이차부등식을 풀 수 있다. [수학Ⅲ] - (2) 함수 - (가) 함수 수학2211.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미적분Ⅰ] - (3) 다항함수의 미분법 - (다) 도함수의 활용 미적1333. 함수의 증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미적분Ⅱ] - (3) 미분법 - (나) 도함수의 활용 미적2322.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 [미적분Ⅱ] - (4) 적분법 - (나) 정적분의 활용 미적2421.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문제 <1-2>	교육과정	[수학 Ⅱ] - (가) 집합과 명제 - ㉒ 명제 ③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이해한다. ⑤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수학 Ⅱ] - (나) 함수 - ㉑ 함수 ①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②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성취기준· 성취수준	[수학 Ⅱ] - (1) 집합과 명제 - (나) 명제 수학2121. 명제와 조건의 뜻을 알고, ‘모든’, ‘어떤’을 포함한 명제를 이해한다. 수학2122. 명제의 역과 대우를 이해한다.

문항 및 제시문		관련 성취기준
		수학2123.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을 이해한다. 수학2125.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과 귀류법을 이해한다. [수학 II] - (2) 함수 - (가) 함수 수학2211. 함수의 뜻을 알고, 그 그래프를 이해한다. 수학2212. 함수의 합성을 이해하고, 합성함수를 구할 수 있다.
문제 <1-3>	교육과정	[기하와 벡터] - (나) 평면벡터 - ㉠ 벡터의 연산 ㉡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수 있다.
	성취기준·성취수준	[기하와 벡터] - (2) 평면벡터 - (가) 벡터의 연산 기백1211/1212. 벡터의 뜻을 알고, 벡터의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수 있다.

나) 자료 출처

참고자료	도서명	저자	발행처	발행 연도	쪽수
고등학교 교과서	수학I	류희찬 외	천재교과서	2014	112-116
	수학II	이준열 외	천재교육	2014	68-69
	미적분I	김원경 외	비상교육	2014	104-110
	미적분II	신항균 외	지학사	2014	130-137 175-180
	기하와 벡터	신항균 외	지학사	2014	62-79
	기하와 벡터	우정호 외	동아출판	2014	64-87

5. 문항 해설

제시문 <가>에서는 극장의 무대에 반원 모양의 커튼과 이 반원과 연결된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을 양쪽에 설치할 때,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무대를 볼 수 있는 영역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문제 1-1(a)>에서는 제시문 <가>에서 소개된 풀이 방법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원 모양의 커튼 대신 포물선 모양의 커튼을 설치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1-1(b)>에서는 제시문 <가>에서 제시된 함수의 정의역을 파악하여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의 넓이를 최소가 되도록 할 때, 무대 양쪽에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이 설치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나>에서는 어떤 함수 g 에 대하여 임의의 함수 f 가 g 와 관련된 어떤 부등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을 증명하는 과정을 소개한다. <문제 1-2(a)>와 <문제 1-2(b)>에서는 함수 g 와 유사한 함수 h 가 주어졌을 때,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함수 g 에 관한 부등식들을 증명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h 에 관한 부등식들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제시문 <다>에서는 좌표평면 위의 크기가 1인 n 개의 벡터들이 그 합이 영벡터라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벡터들이 만족시켜야 할 조건에 대하여 설명한다. 크기가 1인 두 벡터의 합의 크기가 2보다 작게 주어진 경우 두 벡터는 유일하게 결정됨을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문제 1-3(a)>에서는 제시문 <다>의 설명을 이해하고 $n=4$ 인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문제 1-3(b)>에서는 $n=5$ 인 경우 세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나머지 두 벡터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제시문 <다>를 통하여 이해하고 그 두 벡터가 존재할 조건을 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6. 채점 기준

■ 각 세부 문제별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 문제 <1-1(a)>, <1-1(b)>

1. 제시문 <가>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2. 제시문 <가>에서 논의된 과정을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3. <1-1(a)>에서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적분을 얻는다.
4. 위에서 구한 적분을 미분하여 <1-1(a)>에서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t 의 값을 구하고, 이 t 의 값이 무대의 폭 30과 관련이 없음을 설명한다.
5. <1-1(b)>에서 무대 양쪽에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이 설치되며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기 위한 부등식을 찾는다.
6. 부등식의 풀이로부터 <1-1(b)>의 답을 구한다.

▶ 논제 <1-2(a)>, <1-2(b)>

1. 제시문 <나>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2. 제시문 <나>에서 논의된 과정을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3. 정의된 함수 h 를 이해한다.
4. <1-2(a)>에서 임의의 함수 f 와 $a < b$ 를 만족하는 실수 a, b 에 대하여, $f(x)$ 의 값에 대한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함을 증명한다.
5. <1-2(b)>에서 제시된 명제를 제시문 <나>와 같이 귀류법을 사용하여 증명한다.
6. <1-2(b)>에서 제시된 명제의 역을 증명한다.

▶ 논제 <1-3(a)>, <1-3(b)>

1. 제시문 <다>의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
2. 제시문 <다>에서 논의된 과정을 문제에 적용하여 설명한다.
3. <1-3(a)>에서 두 점 A_1 과 A_2 로부터 점 C 를 찾고 두 점 A_3 과 A_4 가 선분 OC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 $x^2 + y^2 = 1$ 의 두 교점임을 설명한다.
4. <1-3(a)>에서 점 A_3 은 점 A_1 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임을 증명한다.
5. <1-3(b)>에서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두 벡터 $\overrightarrow{OA_4}, \overrightarrow{OA_5}$ 의 합이 만족시켜야 할 조건을 구한다.
6. <1-3(b)>에서 앞에서 구한 조건을 적용하여 점 $A_3(a, b)$ 가 나타내는 도형이 반원임을 설명하고 그 길이를 구한다.

■ 각 세부 문제별로 다음의 기준으로 채점한다.

- 1 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논리 전개가 완벽한 경우
- 2 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나 논리 전개나 표현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
- 3 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정확하게 충족시키고, 3-6의 요건 중 3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4 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3-6의 요건 중 2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5 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3-6의 요건 중 2가지를 만족하나 논리 전개 및 계산이 다소 미흡한 경우
- 6 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3-6의 요건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경우
- 7 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만, 3-6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8 등급: 위의 6가지 기준 중 1, 2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은 경우
- 9 등급: 위의 6가지 기준을 대부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7. 예시 답안

■ 1-1(a)

포물선 $y = x^2 + t$ 는 점 $(-\sqrt{10-t}, 10), (\sqrt{10-t}, 10)$ 을 지나므로 대칭성에 의해 이 영역의 반의 넓이

$$f(t) = \int_0^{\sqrt{10-t}} (10 - (x^2 + t)) dx + \frac{10(15 - \sqrt{10-t})}{2} = \frac{1}{3}(5\sqrt{10-t} - 2t\sqrt{10-t}) + 75$$

(단, $0 < t < 10$)을 최소화하면 된다. 한편, $f'(t) = \frac{2t-15}{2\sqrt{10-t}} = 0$ 을 만족하는 t 는 $\frac{15}{2}$ 이고, 이때 $f(t)$ 는 최솟값을 가

지므로 무대 바닥의 한가운데에서 $\frac{15}{2}$ 만큼 떨어진 곳을 꼭짓점으로 하는 포물선모양의 커튼을 설치하면 된다. 한편, $f(t)$ 에서 무대의 폭의 반인 15를 다른 수로 대체하더라도 $f'(t)$ 의 값이 같으므로 $f(t)$ 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t 의 값은 무대의 폭 30과 무관하다.

■ 1-1(b)

무대 양쪽에 두 삼각형 모양의 커튼이 설치되며 커튼에 의해 가려진 부분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frac{6}{\pi} < \frac{n^2+11}{2\pi n}$, 즉 $n^2 - 12n + 11 = (n-1)(n-11) > 0$ 을 만족해야 한다. 이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는 12이다.

■ 1-2(a)

먼저 $f(x) > b$ 이면, $f(x) > b > a$ 이므로

$$h(f(x) - a) + a = a$$

이고

$$h(f(x) - b) + b = b$$

이다. 따라서 부등식은 성립한다. 이제 $a < f(x) \leq b$ 이면

$$h(f(x) - a) + a = a$$

이고

$$h(f(x) - b) + b = f(x) - b + b = f(x)$$

이다. 따라서 부등식은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f(x) \leq a$ 이면 $f(x) \leq a < b$ 이므로

$$h(f(x) - a) + a = f(x) - a + a = f(x)$$

이고

$$h(f(x) - b) + b = f(x) - b + b = f(x)$$

이다. 따라서 부등식은 성립한다.

■ 1-2(b)

함수 f 가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h(f(x) - 7) + 7 \leq h(f(x) - 5) + 5$ 를 만족시킨다고 하자.

결론을 부정하여 어떤 실수 c 에 대하여 $f(c) > 5$ 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h(f(c) - 7) + 7 \leq h(f(c) - 5) + 5$$

이고 논제 1-2(a)에 의하여

$$h(f(c) - 5) + 5 \leq h(f(c) - 7) + 7$$

이므로

$$h(f(c) - 7) + 7 = h(f(c) - 5) + 5$$

이다. 그런데 $5 < f(c) \leq 7$ 이면

$$h(f(c) - 7) + 7 = f(c) > 5 = h(f(c) - 5) + 5$$

이므로 모순이고, $f(c) > 7$ 이면

$$h(f(c) - 7) + 7 = 7 > 5 = h(f(c) - 5) + 5$$

이므로 모순이다. 따라서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leq 5$ 이다. 역으로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f(x) \leq 5$ 이면 $f(x) \leq 5 < 7$ 이므로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h(f(x) - 7) + 7 = f(x) = h(f(x) - 5) +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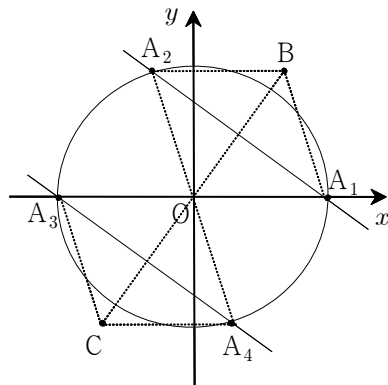
가 성립한다. 따라서 모든 실수 x 에 대하여

$$h(f(x) - 7) + 7 \leq h(f(x) - 5) + 5$$

가 성립한다.

■ 1-3(a)

먼저 점 A_2 의 y 좌표가 0 이하라 하면, 문제의 가정에 의하여 두 점 A_3 과 A_4 의 y 좌표가 모두 음수가 되므로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A_4} = \vec{0}$ 를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점 A_2 의 y 좌표는 0보다 크다. 벡터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의 끝점을 점 B라 하고 점 B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점 C라 두자.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2} = \overrightarrow{OB}$ 이므로 사각형 OA_1BA_2 는 평행사변형이다. 그런데 두 변 OA_1 과 OA_2 는 원의 반지름으로 길이가 같으므로 사각형 OA_1BA_2 는 마름모이다. 마름모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하므로 선분 A_1A_2 는 선분 OB 의 수직이등분선이다. 따라서 두 점 A_1 과 A_2 는 선분 OB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 $x^2 + y^2 = 1$ 의 두 교점이다. 같은 방법으로 $\overrightarrow{OA_3} + \overrightarrow{OA_4} = \overrightarrow{OC}$ 이므로 점 A_3 과 A_4 는 선분 OC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 $x^2 + y^2 = 1$ 의 두 교점임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overrightarrow{OA_1} = \overrightarrow{OA_3} = 1$, $\overrightarrow{A_1B} = \overrightarrow{A_3C} = 1$ 이고, $\overrightarrow{OB} = \overrightarrow{OC}$ 이므로 삼각형 OA_1B 와 삼각형 OA_3C 는 합동이다. 따라서 $\angle BOA_1 = \angle COA_3$ 이고 두 선분 OB 와 OC 가 일직선을 이루므로 두 선분 OA_1 과 OA_3 은 일직선을 이룬다. 따라서 점 A_3 은 점 A_1 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 $A_3(-1, 0)$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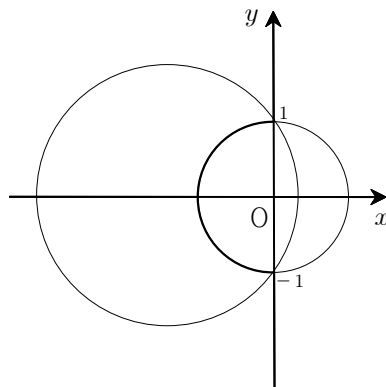


■ 1-3(b)

점 A_4, A_5 는 $\overrightarrow{OA_4} + \overrightarrow{OA_5} = (-\sqrt{3} - a, -b)$ 를 만족시키는 원 $x^2 + y^2 = 1$ 위의 점이다. 점 $B(-\sqrt{3} - a, -b)$ 에 대하여 두 벡터 $\overrightarrow{OA_4}, \overrightarrow{OA_5}$ 의 합이 $\overrightarrow{OB}$ 가 되어야 하므로 두 점 A_4, A_5 가 원 위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선분 OB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한다. 즉, 선분 OB 의 길이가 2 미만이 되어야 한다. (선분 OB 의 길이가 2일 때는 선분 OB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이 접하여 한점에서 만난다.) 그러므로 $A_3(a, b)$ 는 원 $x^2 + y^2 = 1$ 위의 점이면서 원

$$(x + \sqrt{3})^2 + y^2 = 4$$

의 내부의 점이다. 따라서, 점 $A_3(a, b)$ 가 나타내는 도형은 반원이다. 그러므로 도형의 길이는 π 이다.



<다른 풀이>

점 $A_3(\cos\theta, \sin\theta)$ 라 두면

$$\overrightarrow{OA_4} + \overrightarrow{OA_5} = (-\sqrt{3} - \cos\theta, -\sin\theta)$$

이다. 점 $B(-\sqrt{3} - \cos\theta, -\sin\theta)$ 에 대하여 두 벡터 $\overrightarrow{OA_4}, \overrightarrow{OA_5}$ 의 합이 $\overrightarrow{OB}$ 이므로 두 점 A_4, A_5 가 원 위에 존재하기 위하여는 선분 OB 의 수직이등분선과 원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한다. 즉, 선분 OB 의 길이가 2 미만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sqrt{(\cos\theta + \sqrt{3})^2 + \sin^2\theta} < 2,$$

즉, $2\sqrt{3}\cos\theta < 0$ 이므로 이를 풀면 $\frac{\pi}{2} < \theta < \frac{3\pi}{2}$ 이고 점 A_3 가 나타내는 도형은 반원이다. 그러므로 도형의 길이는 π 이다.

V. 2020학년도 논술전형 결과 분석

1. 모집인원 및 경쟁률

구분	대학	모집단위	모집인원(명)	지원인원(명)	경쟁률
인문계	문과대학	한국어문학부	13	352	27.08
		역사문화학과	7	177	25.29
		프랑스언어·문화학과	5	126	25.20
		중어중문학부	16	465	29.06
		독일언어·문화학과	5	130	26.00
		일본학과	6	148	24.67
		문헌정보학과	5	143	28.60
		문화관광외식학부-문화관광학전공	7	198	28.29
		문화관광외식학부-르꼬르동블루외식경영전공	7	185	26.43
		교육학부	11	300	27.27
	생활과학대학	가족자원경영학과	5	124	24.80
		아동복지학부	11	278	25.27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3	68	22.67
		행정학과	7	157	22.43
		홍보광고학과	8	202	25.25
		소비자경제학과	5	107	21.40
		사회심리학과	5	133	26.60
	법과대학	법학부	19	478	25.16
	경상대학	경제학부	8	195	24.38
		경영학부	14	403	28.79
	영어영문학부	영어영문학부-영어영문학전공	15	418	27.87
		영어영문학부-테슬(TESL)전공	4	81	20.25
	미디어학부	미디어학부	16	443	27.69
인문계 소계			202	5,311	26.29
자연계	이과대학	화학과	6	128	21.33
		생명시스템학부	7	178	25.43
		수학과	6	93	15.50
		통계학과	5	104	20.80
	공과대학	화공생명공학부	10	304	30.40
		ICT융합공학부-IT공학전공	9	215	23.89
		ICT융합공학부-전자공학전공	7	139	19.86
		소프트웨어학부-컴퓨터과학전공	7	135	19.29
		소프트웨어학부-소프트웨어융합전공	5	102	20.40
		기계시스템학부	9	162	18.00
		기초공학부	15	344	22.93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5	151	30.20
		식품영양학과	7	141	20.14
자연계 소계			98	2,196	22.41
모집인원 계			300	7,507	25.02

2. 논술 / 교과 성적 현황

■ 지원자 및 합격자의 교과성적 현황

구분	지원		합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문계열	4.38	1.06	3.82	0.86
자연계열	4.40	1.05	3.84	0.85

■ 검정고시 출신자 등 학생부 성적 없는 자 제외, 이수단위를 반영하지 않은 반영교과목의 단순평균임(학년별/학기별 가중치 없음)

- 인문계 : 국어, 수학, 사회(도덕 포함), 외국어(영어)교과에 속한 전 과목
- 자연계 : 국어, 수학, 과학, 외국어(영어)교과에 속한 전 과목
- 의류학과 : 인문계 반영교과, 자연계 반영교과 중 택일
- 미술대학, 체육교육과 : 국어, 사회(도덕 포함), 외국어(영어)교과에 속한 전 과목

■ 지원자 및 합격자의 논술성적 현황

구분	지원		합격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인문계열	4.55	1.38	2.53	0.53
자연계열	4.72	1.49	2.74	0.69

■ 논술등급 : 인문계열은 문항1, 문항2의 평가 결과를 자연계열은 문항1, 문항2, 문항3의 평가 결과를 평균하여 산출함(평가위원 2인이 1~9등급으로 종합평가 함)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을 이용할 경우

[1호선] 남영역에서 도보 약 20분 내외

[4호선] 숙대입구역 10번 출구로 나와서 효창공원 방향으로 도보 약 20분 내외

[6호선] 효창공원앞역 2번 출구로 나와서 도보 약 20분 내외

버스를 이용할 경우

[지하철 1호선 남영역 부근] 162, 503, 505, 1711, 7016, 용산04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 부근] 100, 150, 151, 152, 162, 262, 421,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605, 705A, 705B, 751, 752, 1711, 7016, 공항6001

[지하철 6호선 효창공원앞역 부근] 110A, 110B, 400, 740, 2016

[숙명여대 정/후문 하차] 400, 2016, 용산04

